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7291.91	↑ 코스닥	794.00
	(+45.12)		(+9.00)
↑ 금리 (미국 3년)	3.778	↑ 환율 (원/달러)	1510.40
	(+0.003)		(+11.90)

하이닉스 ADR 상장
SK스퀘어
재평가 기대감
03



금리전망 쉬쉬하는 美 한은, 섣범 더 꼬인다

케빈 워시 체제 美 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워시 의장 체제 첫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 기대를 약화시키고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열었다. 연준이 물가 안정 우선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힌트는 줄이면서, 원화 약세와 수입물가 부담을 안은 한국은행의 금리 섣범도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6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6월 회의에서 이미 금리를 올릴 근거가 있다고 봤고, 물가가 높은 수준에 머물 경우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시각도 확인됐다. <관련기사 3면>

정책 힌트 줄이고 성명서는 '간결' 금리인하 기대 약화, 긴축 가능성 AI투자, 반도체 가격 올리는 '변수'

◆ 인하보다 인상 리스크

이번 의사록은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리겠다는 선언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인하 논의는 뒤로 밀리고,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긴축을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전면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 결정 자체는 만장일치 동결이었다. 하지만 내부 논의는 성명서보다 매파적이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전망치를 제출한 18명의 정책 담당자 가운데 절반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나머지 절반은 동결 또는 인하를 지지했다. 워시 의장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금리 전망을 제출하지 않았다.

◆ 물가가 고용 늘렸다

연준 내부의 판단은 물가 쪽으로 기울었다. 의사록에는 가격 안정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고, 최대고용 달성에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워싱턴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 하방 리스크는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담겼다. 운송, 항공요금, 석유화학 제품, 농산물 투입 비용 등에서 가격 압력이 늘어났다는 언급도 나왔다.

새로운 변수는 인공지능(AI) 투자다. AP통신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반도체와 컴퓨터 장비, 전력 가격을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FOMC 의사록에서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AI 투자 붐이 기술 제품과 전력 수요를 자극하면서 Fed에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이 대목은 한국경제에도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다. 반도체 사이클 회복은 한국 수출과 성장률을 떠받치는 긍정 요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같은 AI 투자 수요가 물가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에는 성장 호재인 반도체·AI 사이클이 미국 금리 측면에서는 인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판단은 더 복잡해진다.

◆ 길어진 한은의 고민

워시 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커뮤니케이션 변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FOMC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포워드 가이드언스를 줄이고, 정책 성명서를 더 간결하게 만드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수 참석자는 성명서를 줄이는 데 잠정이 있다고 봤고, 6월 성명서에서는 다음 정책 움직임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가 빠졌다.

문제는 연준이 말을 줄일수록 한은의 계산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지고 인상 가능성까지 남아 있으면 달러화와 미 국제금리는 지표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원화도 그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한은은 이미 물가와 환율 부담 속에서 신중한 기조로 돌아섰다. 한은은 지난 5월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지만,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0.25포인트(p) 인상 의견을 냈다. 신 총재는 당시 물가와 성장, 환율, 부동산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고 하며 향후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 폭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한미 금리차 부담은 길어진다. 이는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해 국내 물가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은이 환율을 직접 목표로 삼지 않더라도, 환율이 물가로 번지는 경로를 무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본지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성료

황선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2026 백세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최규춘 기자

모호한 가짜뉴스처벌법 '기업에 책임전가'

방통위, 개정안·가이드라인 발표 네이버·카카오·틱톡 등 9곳 대상 허위·조작정보 기준은 제시 안해

정부가 이른바 '가짜뉴스처벌법'의 첫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정작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신고 접수와 삭제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구조가 되면서 업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판단 책임이 민간기업에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부과 천청사에서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년 말 기준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

자로 지정된다.

올해대상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디시인사이드·구글·메타·엑스(X)·틱톡 등 9곳이다. 이들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고 자율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판단을 거쳐 삭제나 숨김, 가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정부가 별도의 기준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 사실상 판단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플랫폼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뒤에도 불복하면 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 결론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판단 기준

은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1차 판단 책임을 플랫폼에 맡긴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미약판매나 불법 촬영물처럼 명백한 불법정보는 기존에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어디까지를 허위로 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내부에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체계를 만들라는 것은 민간기업이 표현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책임을 민간 플랫폼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실확인 단계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필요할 경우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어 허위 여부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



주담대 최대 3억 제한... 가계대출 조인다

(KB국민은행)

국민·하나·농협·경남 은행 이어 신한은행, 주담대 일부 보증 중단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일부 보증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모기지신용보증(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KB국민·하나·NH농협·BNK경남은행에 이어 다섯 번째다.

MCI·MCG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 지역 아파트는 최대 5500만원, 경기도는 최대 4800만원가량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인 채널을 통한 주담대 신청도 중단했다. 이달 모집인 채널 한도가 일주일 만에 모두 소진된 영향이다.

주요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MCI·MCG 취급을 잇달아 중단하

고 있다. NH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중단한 데 이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 하나은행은 이달 1일, BNK경남은행은 지난 8일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은행권의 자체 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자율 규제를 시행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가운데 자체적으로 한도를 추가 축소할 것이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유리 기자 yul15@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장동혁 "선거소청 기각 지침에 서울시선관위원 3명 사임...워철한, 직권남용" /사진 뉴시스
▲輿 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박홍근 "물가 年 2.3% 올때 교육교부금 6.5% ↑...재구조화해야"
▲KBS "김민우착 의혹 보도" 5억대 소송 한동훈 1심 패소...6년만에 결론

▲홍준표 "장마철 되면 MB 4대강 사업 대단했다 생각...지류까지 했으면"
▲국방부 "사관학교 통합, 빠른 시일 내 공청회로 여론 수렴"

K-기업 글로벌 영토 확장

‘더현대 글로벌’ 일본 상륙 현대百, 亞시장 공략 박차

도쿄에 첫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홍콩·대만 등 주요도시 매장 확대

현대백화점이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에 ‘더현대 글로벌’의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다.

현대백화점이 10일 일본 럭셔리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중심지인 도쿄 오모테산도의 복합쇼핑몰 ‘도큐플라자 오모카도’에 ‘더현대(THE HYUNDAI AI)’를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 백화점이 일본 핵심 상권에 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현대 글로벌은 K패션·뷰티·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현대백화점은 2024년 도쿄 파르코 시부야점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정규 매장과 일본 온라인 패션 플랫폼 ‘누구(NUGU)’ 내 더현대 글로벌관을 운영하며 현지 사업을 확대해 왔다.

이번 매장은 총 620㎡(약 187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패션·뷰티·식음료(F&B)·지식재산권(IP) 콘텐츠 등 7개 브랜드와 2개의 팝업 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룹 TWS가 공식 앰배서더로 참여한다.

매장 인테리어는 서울의 라이프스타일과 쇼핑 문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K패션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은 일본 2030세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설정했다.

패션존에는 코이세이오038, 로라로라, 더블 러버스, 히에타, 스탠드오일 등이 입점한다. 스탠드오일은 더현대 글로벌을 통해 일본과 대만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바 있다.



더현대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 전경. /현대백화점그룹

식음료와 IP 콘텐츠도 함께 선보인다. 더현대 서울의 인기 커피 브랜드 카멜커피가 일본 첫 매장을 열고, K팝·드라마·캐릭터 관련 상품을 선보이는 플랫폼 위드뮤도 일본 시장에 처음 진출한다.

매장 내에는 상시 팝업 운영을 위한 ‘팝업 아이코닉(ICONIC)’과 ‘팝업스퀘어(SQUARE)’도 마련됐다. 개점을 기념해 오는 22일까지 배우 변우석의 아시아 투어 팬미팅 팝업스토어 ‘시크릿 라이브러리(The Secret Library)’가 운영되며, 다음 달 9일까지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락스클럽의 일본 첫 오프라인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매장을 계기로 더현대 글로벌의 아시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일본,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거점에 플래그십 매장 10여 곳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농심, 美 현지 마케팅 활발 신라면 등 브랜드 입지 강화

뉴욕 미쉐린 레스토랑 ‘아토보이’ 협업
대규모 체험 행사·전시 등 K-푸드 소개

농심이 미국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과 한국문화원 협업을 통해 신라면을 앞세운 현지 마케팅을 확대한다. 미쉐린 스타 셰프 레스토랑과의 협업부터 한국식 PC방 문화를 접목한 체험 행사까지 이어가며, 미국 주류 시장에서 K-푸드 대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한다.

농심은 7월 한 달간 뉴욕의 한식 레스토랑 ‘아토보이(Atoboy)’와 협업해 신라면을 활용한 한정 메뉴 ‘신라면 팬케이크’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출시 40주년을 맞은 신라면과 개점 10주년을 맞은 아토보이의 협업으로 한국식 전을 모티브로 한 메뉴에 신라면의 매운맛과 감칠맛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농심은 오는 28일 뉴욕 라디오 파크에서 열리는 아토보이 10주년 기념 행사에도 참여해 ‘신라면 분식’ 부스를 운영하고 신라면과 신라면 톱바를 현지 셰프와 미식 관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농심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뉴욕한국문화원과의 협업을 이어간다. 내달 22일까지 문화원 내 한국식 PC방 콘셉트 공간에 ‘신라면 분식’을 운영하며 신라면컵과 스낵 ‘뽕부장’을 전시하고, 영화제와 K팝 행사 등 주요 문화 행사에 맞춰 시식 행사도 진행한다. 게임을 하며 라면과 스낵을 즐기는 한국의 PC방 문화를 현지에 소개한다는 취지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뉴욕한국문화원과 함께 진행한 ‘Han River in NYC with SHIN RAM



농심 아토보이 협업 메뉴 ‘신라면 팬케이크’ /농심

YUN’에 이은 두 번째 협업이다. 농심은 뉴욕 내 대표적인 한류 거점을 활용해 현지 소비자와 글로벌 K-컬처 팬들에게 브랜드 경험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농심은 미국 시장에서 다양한 현지 마케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대규모 체험 행사와 옥외광고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뉴욕 JFK공항 제1터미널에 ‘신라면 분식’ 매장을 열었다. 올해 1월에는 미국 ABC의 인기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 신라면이 단독 예피소드로 소개되기도 했다.

농심 관계자는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신라면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K-푸드 대표 브랜드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백화점, 명품·패션 등 판매 호조... 2분기 실적전망 ‘맑음’

원화 약세 지속... 외국인 매출 증가세
금융정보업체, 수익성 큰 폭 개선 전망

내수 소비 침체에도 백화점계가 2분기 호실적을 예고했다.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 확대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원화 약세에 따른 명품 수요 확대가 뒷받침되면서 백화점 3사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백화점 3사는 고마진인 명품과 패션 부문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반적인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전세계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조7960억 원, 영업이익은 98% 급증한 1494억 원으로 추정했다. 롯데쇼핑 역시 매출 3조5612억 원, 영업이익 1099억 원으로 각각 6%, 170% 늘어나 큰 폭의 이익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현대백화점은 가구·메트리스 자회사 지누스의 부진이 반영되면서 매출 1조495억 원(-2.9%), 영업이익 852억 원(-1.8%)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백화점 본업은 의류 판매 호조와 감가상각비 감소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호실적의 핵심 동력은 국내 고소

득층의 소비 여력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소비 증가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964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소비지출도 6.9% 늘어난 556만6000원을 기록했으며, 의류·신발 지출은 12.0% 증가해 소비 여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비는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빠르게 성장해 백화점 실적을 떠받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방한 관광객은 4월 202만 7860명, 5월 194만 5809명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대비 18.8%, 19.4%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 집계한 외국인의 국내 카드 소비액(관광총소비)도 4월 1조9924억 원, 5월 2조1222억 원으로 월간 기준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각각 46.5%, 67.1% 증가한 수치다.

최저임금 쟁심의 막바지 ‘1만490원’ 이상 유력

내년(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법정 심의 시한을 넘어선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오늘 중 마무리하자”며 노사 양측 모두에 양보를 요구했으나,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시각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현재 노사 간 격차는 지난 회의의 거처며 860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노동계의 7차 수정안은 1만1350원(올해 대비 10.0% ↑), 경영계 7차 수정안은 1만490원(1.6% ↑)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1만490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이날 회의에서 수정안을 최소 3차례 더 제시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협상에서 노사가 더 이상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담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사는 이 구간에서 최종안을 내 합의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토대로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김서현 기자 seoh@



/나유리 기자 yul115@



/세종=한용수 기자 hys@



금융권 가계대출 8.3조 ↑... 주담대 증가폭 커져

주택거래 증가·집단대출 실행 등 영향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보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조5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8조3000억 원 증가

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6000억 원 늘며 전월(6조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2조1000억 원에서 2조9000억 원으로, 정책성 주담대는 1조 원에서 1조4000억 원으로 각각 증가폭이 커졌다. 반면 기타대출은 3조7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7000억 원 증가해 전월(2조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상호금융권은 8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고, 보험은 9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6000억 원 증가에서 2000억 원 감소로, 저축은행은 2000억 원

증가에서 3000억 원 감소로 각각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6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기존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했다”며 “다만 은행권의 신용대출 자율관리 조치 영향으로 기타대출 증가 규모가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보다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ADR 상장 효과 SK스퀘어 재평가 기대 확산

나스닥 입성 앞두고 수요 몰려
7조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
최대주주 지분가치 상승 주목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전망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공모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ADR 상장을 계기로 7조원 규모의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과 함께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의 기업가치가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 수요예측 공모에 글로벌 장기투자 펀드와 기술 분야 전문펀드, 국부펀드, 아시아 전문 글로벌 투자자 등의 수요가 몰렸다.

ADR은 10일 나스닥에서 임시 거래를 시작하며, 13일부터 정규 거래로 전환된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주목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SK하이닉스에 대해 "ADR 상장은 1997년 10월 미국에 ADR 상장을 한 TSMC 사례와 비교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글로벌 투자자 저변 확대를 기반으로 ADR은 본주 대비 프리미엄을 형성했고, 이 과정에서 본주와 ADR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한 전환 및 차익거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20만원을 유지했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도 지난 달 유튜브 웹세미나 '반도체 시장 점검과 TIGER 반도체 ETF 투자전략'에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ADR 상장을 통해 최소 7조원의 수급이 몰리고, 나스닥 지수 편입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관투자자와 패시브 자금의 SK하이닉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대표 반도체 지수에 편입될 경우 약 46억달러(약 7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주주인 SK스퀘어의 기업가치도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 증시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

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경우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 상승이 SK스퀘어의 순자산가치(NAV)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의 지분 2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자산 가치 변동은 SK스퀘어의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구조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과 함께 SK스퀘어의 기업가치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SK스퀘어는 반도체 밸류체인 내 SK하이닉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확장을 지속해 검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AI 메모리 혼풍에 부품업체 실적도 날개

삼성전기·LG이노텍, 실적개선 기대
AI 서버용 기판·MLCC 수요 확대

AI 메모리 호황이 부품업체에도 혼풍을 불어넣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 기판과 적층 세라믹콘덴서(MLCC) 수요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능력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각각 3819억원, 1537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9.3%, 1348.2% 늘어 수준이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힘입어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연결하는 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 MLCC 등 고부가 부품 수요가 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MLCC 업계 1위인 일본 무라타가 최근 가격 인상 방침을 시사한 데 따라 업황 회복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는 글로벌 MLCC 산업의 B/B(Book-to-Bill) 비율이 최근 1.0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B/B 비율이 1을 넘으면 수주액이 출하액을 웃도는 것으로, 향후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또 삼성전기는 지난 1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기존 고객사의 FC-BGA 공급 확대 요청에 더해 2분기부터 신규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생산능력(캐파)을 웃도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약 4500억원 규모의 AI 서버용 MLCC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중장기 실적 성장 기반도

확보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다.

LG이노텍은 기존 주력인 광학솔루션 사업이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사업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광학솔루션 사업은 애플 프리미엄 모델 판매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FC-BGA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판 사업도 외형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기판 사업의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KB증권은 LG이노텍의 FC-BGA 매출이 올해 1400억원에서 2028년 1조1000억원, 2030년 2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대비 2028년에는 약 8배, 2030년에는 약 16배 성장하는 셈이다. AI 반도체 기판 생산라인 가동률이 100%에 근접한 데다 판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빅테크와 AI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선수금 지급과 설비투자 지원, 3~5년 장기 공급계약 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양사는 수요 확대에 맞춰 생산능력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부산과 세종, 베트남을 중심으로 FC-BGA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LG이노텍도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3월 FC-BGA 양산라인 확대를 위해 구미사업장에 6000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베트남 하이퐁에도 반도체 기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공장은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최태원, 나스닥서 AI 메모리 가치 띄운다

(SK그룹 회장)

SK하이닉스 ADR 상장행사 참석
HBM 중심 성장전략 직접 설명
글로벌 AI 고객사 회동도 관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열리는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식에 참석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AI 메모리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상장식을 전후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빅테크 경영진과의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 속에서 기업가치 재평가와 AI 메모리 협력 확대를 위한 행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나스닥에서 열리는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기념행사에 관조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함께 참석한다.

최 회장은 오프닝벨 세리머니와 투자자대상 기업설명회(IR)를 통해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한 AI 메모리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피크아웃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AI 메모리의 구조적 성장성과 고객 기반 확대를 앞세워 기업가치 재평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은 지난 2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황 CEO와 만나 HBM, SOCAMM, 낸드플래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협력을 논의했으며, 지난달 황 CEO의 방한 당시에도 만나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미 기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회동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업 스페이스XAI(전 xAI)의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필요한 HBM 공급과 차세대 AI 메모리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스페이스XAI는 초대형 AI 클러스터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총수들의 미국행이 같은 시기에 이어진 점도 눈길을 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열리는 선블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과 잇달아 회동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와 AI 반도체 고객 확보에 집중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투자자와 고객사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적절한 시기 기준금리 인상 필요”

한은, 물가·부채·환율 리스크 경계
반도체 호조에 성장세 견조 흐름



이다.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가 지난해 1.1%보다 크게 확대된 2.6%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통관수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70.9%로 제시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성장세가 견조한 가운데 물가 오름세가 목표 수준을 웃돌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한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기준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2.5% 수준에서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한 배경으로 성장세 개선과 물가 압력, 금융안정 리스크를 함께 제시했다.

한은은 “성장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당 기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이날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우선 경기 흐름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지역 긴장도 완화되면서 국내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 전망

문제는 물가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1~2월 2.0%로 목표 수준에서 안정됐지만, 3월부터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을 받아 빠르게 상승해 6월에는 3.2%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같은 달 근원물가 상승률은 2.5%, 생활물가 상승률은 3.4%를 기록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 하락은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압력 확대가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고환율 지속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 등 비용 충격이 기업들의 가격 인상 유인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 이후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은 낮아지더라도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웃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신 총재는 “원·달러 환율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과 미 달러화 강세로 1500원대 초중반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관세·화재’ 악재 딛고,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로 입지 강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양성운 기자

19 금호타이어

KUMHO TIRE

한 때 1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금호타이어가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실적 반등 국면에 진입했다. 지난해 미국발 관세 부과와 광주공장 화재 등 여러 악재를 뚫고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4조 7013억원을 기록하는 등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인차·전기차(EV) 타이어 판매 비중을 확대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 올해 매출 5.1조원 목표 향해 순항

금호타이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며 2025년 연결기준 경영실적으로 매출액 4조 7013억원, 영업이익 575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3.7% 성장한 수치로 영업이익률은 12%에 달한다.

올해는 실적 가이던스로 매출액 5조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목표를 향해 순항 중이다. 최근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금호타이어의 기업신용등급을 기존 'A0(안정적)'에서 두 단계 상향 조정된 'A+(안정적)'을 부여하며 대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사업 구도를 갖췄다고 분석했다.

금호타이어는 프리미엄 제품 공급, 글로벌 유통 확대,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의 입지 강화에 힘쓰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외형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재무구조를 안정화하며 자본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와의 OE 파트너십은 금호타이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내실 있는

지난해 매출 4.7조, 영업이익 5755억 대외변수에도 신용등급 2단계 상향 폭스바겐 등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에이투지와 자율주행차 타이어 개발 4년來 미래형 타이어 상용화 계획 중 매출, 과거 수준으로 회복 못해 EU '반덤핑 관세'에 수출 적신호 중 난징공장 증설 등으로 대응

세계 최정상 모터스포츠 대회 등 타이어 공식 공급업체 타이틀 확대



금호타이어-에이투지 자율주행차 미래형 타이어 기술개발 및 공급 업무 MOU 체결.

는 성장을 이어가는 핵심 기반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4년에는 폭스바겐 파사트 및 스코다 슈퍼브에, 지난해에는 기아의 타스만,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쿠퍼라의 테라마르, 그리고 최근에는 스코다의 엔야크와 엘룩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소식을 전했다. 연이은 OE 공급 계약으로 금호타이어는 폭넓은 제품 스펙트럼과 차종 다변화에 유연히 대응하는 품질 신뢰도를 입증하고 있다.

◆ 지속적인 R&D 투자... '프리미엄 브랜드' 도약 박차

금호타이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I) 기술을 타이어 개발에 적극 활용해 컴파운드 및 성능을 예측하는 '타이어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하며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금호타이어는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인 '오토노머스 에이투지'와 함께 '자율주행차 미래형 타이어 기술개발 및 공급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에이투지는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기업 순위에서 세계 11위에 오르며 국내 유일의 상위권 진입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에이투지와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형 레벨4 자율주행차인 '로이(ROII)'에 타이어를 공급하며, 해당 차량은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투입되어 글로벌 무대에 선보인 바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과제를 통해 4년 이내에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적용 가능한 미래형 타이어를 상용화 계획이며 특히, 스마트 센서 기반 타이어 및 에어리스타이어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도심항공모빌리티(UAM)용 타이어 '에어본타이어', '에어리스타이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센서를 부착한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또한 발빠르게 상용화를 모색하고 있다. 스마트 타이어는 내부에 장착된 센서 모듈을 통해 주행 중 타이어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타이어와 관련된 위험성을 알려준다. 기술 실험을 넘어 실사용 단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하며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자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 중국 등 아시아 매출 반등 해결해야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매출이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중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과 OE 공급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지 브랜드들의 경쟁력 강화에 따라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실제 중국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감소 이후 4분기 들어 반등했지만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고인차 타이어 비중도 60%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분기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다. 전략 방향은 명확하지만 성과로의 전환은 아직 진행 중인 단계라는 평가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생산한 타이어 제품에 최고 24.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하면서 금호타이어의 중국 생산 제품의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유럽 내 생산 기지가 없어

중국과 국내 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호타이어는 중국 난징 공장 증설을 통해 전기차 및 신에너지 차량용 타이어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폴란드 신공장 건설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하며 연구개발을 거듭해 선도적인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나은 모빌리티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미래형 제품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금호타이어의 경쟁력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술명가'라는 명칭에 걸맞은 브랜드로서 도약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금호타이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합평 및 유럽공장 건설을 통한 한국-유럽-북미를 잇는 글로벌 생산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과 수익성 확보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8월 31일 강원도 인제 스피드돔에서 열린 '현대N페스티벌' eN1클래스 2라운드에서 금호타이어 후원 '금호 SL 모터스포츠팀' 이창욱 선수(가운데)가 1위를 차지했다.

/금호타이어

한편 금호타이어는 전 세계 주요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공식 타이어 공급 업체 타이틀을 지속 확대하며 글로벌 모터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정상 투어링 대회인 'KUMHO FIA TCR World Tour'를 통해 기술력과 성능 경쟁력을 입증하며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6 오토헤리츠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 참가, '2026 현대 N 페스티벌'의 그란 투리스모 eN1 클래스 참가팀 후원 및 금호 N1 클래스 후원을 진행하며 고성능 차량 레이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수십년간 모터스포츠 활동을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퍼포먼스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금호타이어 대표 캐릭터 '또로'와 '로로'.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문화강국의 내일은 지금 박물관에서 자라는 중

과거의 아름다움부터
기대되는 미래까지
그려보고 상상하는 곳

박물관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는
첫 번째 순간이 되기에

KB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소중한 시작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곳곳의 박물관 무료 관람을 지원합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미래,
지금 박물관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신청 경로 KB스타뱅킹 ▶ 국민지갑 ▶ 일상 속 편의 ▶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전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무료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바로 가기



KB KB금융그룹

홈플러스 회생 논의서 고성 오간 MBK·메리츠 '책임 공방'

17일까지 2000억 미확보시 파산
민주 을지로위 "서로 조건만 내세워"
국민연금에 MBK 투자금 회수 요구

"1000억원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 경영진이 홈플러스 회생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성(高成)이 터져 나왔다. 고성의 주인공은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다. 민 위원장에 따르면 MBK 측은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메리츠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2000억원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해야 감병주 MBK 회장의 개인보증서를 제출하겠다고 새 조건을 걸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는 오는 17일까지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하다. 메리츠 측은 감병주 MBK 회장이 보증한다는 조건으로 긴급운영자금(DIP) 1000억원을 에스프로 계좌에 예치해 둔 상태인데, MBK 측이 돌연 메리츠 측에 2000억원의 대출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메리츠의 에스프로 예치 운영자금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담회'를 열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왼쪽에서 4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1000억원을 마련할 방안을 이 자리에서 강구해보려고 했으나, 두 기업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회의 분위기는 경색됐다. 또한 메리츠는 에스프로 예치 자산 1000억원의 집행 조건을 법무법인, 회계법인, 이사회 검토 후 배임의 소지가 없을 경우로 한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MBK와 메리츠가 홈플러스 회생을 막기 위해 곳곳이 '지뢰'를 심어놓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메리츠는 홈플러스의 제1채권자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지금까지 회생에 대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볼 때 관련한 이자 받는 것을 유예했다고 한다"며 "그런 법적으로 유예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메리츠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단 1원도 투입한 바 없다. 나중에 청산 후 이자 감면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감면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부 안 받았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메리츠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권을 설정했는데, 그 담보권이 충분해보이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긴급운영자금대출(DIP)도 안 한다고 한다. 메리츠로서는 100% 본인들에 안전한 방법만 한다고 보면 된다. 담보 여력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손해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

인적인 의견으로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온 '가짜 엄마, 진짜 엄마' 이야기를 예로 들고 싶다"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에 대해서 가짜 엄마는 아이를 죽더라도 쫓겨가고 하는데, 진짜 엄마는 죽으면 안 되지 하고 가져가려고 한다. 두 집단(MBK와 메리츠)은 10만 민생과 관련해서 가짜 엄마"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도 홈플러스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을지로위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MBK 투자금 회수, 위탁 운용사 자격 관리 강화 등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위탁 운용사 선정 및 관리 기

준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간 경과 이상의 제재를 받은 위탁 운용사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MBK가 홈플러스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직무정지란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연금은 MBK가 운영하는 11개 사모펀드에 약 2조5000억원을 출자하고, 일부는 회수됐지만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여전히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운용사의 운용 적정성과 책임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MBK의 반복된 악질적 금융행태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논란을 고려할 때 기존 투자자 회수 문제와 위탁 운용사 자격 유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 청산이 현실화되면 노동자, 입점업체, 납품업체, 전단체 피해자들의 피해는 볼보듯 뻔하다. 홈플러스는 6월분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며 이는 332억원 규모다.

/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민주당 전당대회 룰 확정 난항... 계파 갈등 재점화

선호투표제·순회경선 신경전
친청계, 결선투표제 도입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규칙을 조율 중인 가운데, 당 대표 선출 방식과 순회 경선 일정을 두고 각 후보 간 입장이 팽팽해 확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9일 국회에서 전준위 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재논의했다.

이연희 전준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 입장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친청계(친정청대)인 이성운·문정복 최고위원은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호투표 도입에 반대했는데, 이 의원은 "오늘 전준위 기획분과에서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고했고,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날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체회의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뉴스시스

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 대표 선출 방식은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선호투표제는 3인 이상의 후보가 출마하는 선거에서 대표를 선출할 때,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제

외하고 최하위 득표자가 받은 2순위 표를 남은 후보들에게 가산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가 가까운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 최하위 득표자가 되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도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정청대 전 대표 입장에서 불리한 투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 전 대표 측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가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선호투표를 두고 "이미 11차 당무위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김 전 총리는 "문제없는 룰을 자주 시비 거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집단적 자기정치"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에 "선호투표는 투표를 한 번만 해도 되니까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친청계는 1차투표와 결선투표 사이에 쟁점화를 시켜서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순회 경선 일정으로도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전준위는 민주당 순회 경선 시작과 끝이 정청대 전 대표의 고향인 '충청'에서 치러지도록 설계했는데 김 전 총리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전남 순천을 찾아 기자들에게 "순회경선 순서도 대전에서 시작해 대전에서 끝나는 게, 대전 연고인 직전 대표가 출마하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문제는 제기"였다고 하며 "통상적으로, 우리 정당사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런 게 깨졌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생각도 없고 룰을 바꾸려 하거나 시비하지 않겠다. 돌파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박태홍 기자

李, 몽골서 정상외교 리튬·희토류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8일 오후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정상 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군 1호기를 타고 몽골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은 15년만이다.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파메'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몽골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동반자인 동시에, 북한과도 오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이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역내 주요국들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 온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몽골 국빈 방문을 두고 "한-몽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몽골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1990년 수교 이래 36년간 변함없는 신뢰를 쌓아온 가까운 파트너"라며 "몽골인들에게 '황금(黃金)'이라는 말은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인 만큼 양국의 황금시대도 양국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새로운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몽골 국빈 방문 중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해 양국 신뢰를 증진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박태홍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안 두고 여야 충돌

국힘, 장윤기 사건 등 사례 들며 총공세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속도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소식에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없는 세상에서 구제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앴다. 수사팀은 그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

주고 앞장서서 사건을 축소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을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대변인단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보완수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가해자가 경찰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국민이 국가를 믿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인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검찰에 대한 복수심도,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선동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기존 계획대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형사소송법TF는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날(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2건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한 뒤 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TF가 발의한 안은 이미 상정된 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으로 성안될 것으로 보인다.

/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1960년대 한 기업가의 말입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광고의 의미는
 도저히 아티팩트이다
 은의 표 깃는이다
 소비 다 디지털
 소비 각 기업
 재미있고 흥미로운
 광고의 의미로
 바꿀 수 있다

차기 보험개발원장 후보군 압축 유재훈·신현준·안철경 '3파전'

유, 시장 두루 경험 '정통 금융관료' 신, 금융권 신용정보 등 경험 강점 안, 보험연구원장 지낸 '보험통' 금감원 출신 인사 슛리스트 제외



유재훈 전 금융위 국장 신현준 전 신용정보위원장 안철경 전 보험연구원장

차기 보험개발원장 후보군이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국장, 신현준 전 한국신용정보위원장, 안철경 전 보험연구원장 등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창언 원장이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임원 출신인 가운데 이번 슛리스트에서는 금감원 출신 인사 제외되면서 보험 유관기관 인사 기류가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차기 원장 후보군을 3명으로 추렸다. 후보군에는 유전 국장, 신 전 원장, 안 전 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17일 차기 원장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지원자 심사와 후보군 압축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 선임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차기 원장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와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 산출과 검증, 보험통계 관리, 상품-제도 연구, 자동차 기술연구소 운영 등을 맡고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회원사로 둔 만큼 원장 인선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을 잇

는 조율 능력,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데이터·요율 전문성을 함께 평가받는 자리로 꼽힌다.

후보군의 색깔은 뚜렷하게 갈린다. 유전 국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 기업구조조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통 금융관료 출신이다. 성남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용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신 전 원장은 금융권 신용정보와 데이터 인프라 분야 경험이 강점으로 거론된다. 안 전 원장은 보험연구원장을 지낸 보험연구제도 전문가다. 안 전 원장은 휘문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보험연구원에서 연구조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부원장 등을 지낸 후 2019년 원장 자리에 올랐다.

이번 인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금감원 출신이 슛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금감원 보험감독국장과 보험 담당 부원

장을 지낸 금감원 보험 라인 출신이다. 이 때문에 차기 원장 인선에서도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결과적으로 슛리스트 진입에는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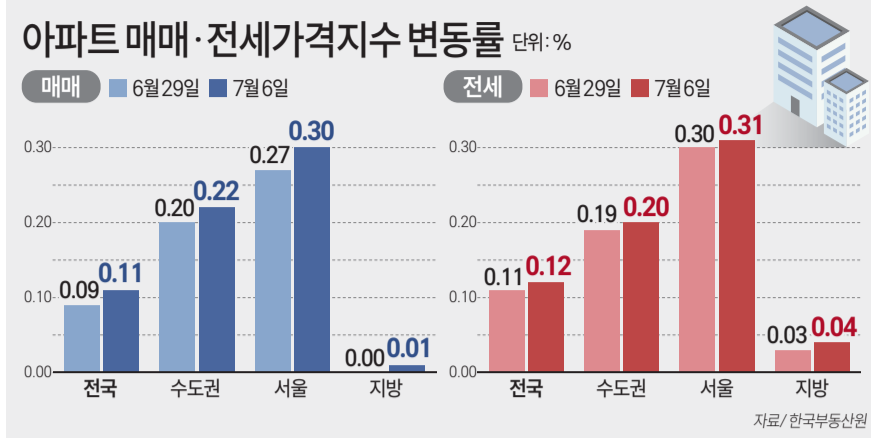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 출신이면 유리하다는 기존 유관기관 인사 공식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개발원장은 당국과 업계를 모두 이해해야 하는 자리지만, 최근에는 감독 경험뿐 아니라 보험 데이터, 요율 산출, 통계 관리, 제도 연구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슛리스트가 정책·정보·연구 분야 인사들로 채워진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출신 인사가 슛리스트에 오르지 못한 것은 보험 유관기관 인선에서 감독당국 경력의 인사 프리미엄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 더 확대

주간 매매지수 0.11%, 전세 0.12% ↑ 서울 아파트 0.30% 올라 상승폭 확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값은 물론 임대차 시장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은 지난 6일 기준 매매가격지수는 0.11%, 전세가격지수는 0.12%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0.30% 올라 전주(0.27%)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시장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존재하지만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해 서울 전세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강북에서는 성북구가 0.51%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중랑구(0.39%)는 신내면 목동 역세권 위주로, 광진구(0.38%)는 구의-자양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34%)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34%)는 명일·암사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올랐다.

경기 역시 0.23%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지난달 30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는 강세가 이어졌다.

동탄구는 1.29% 올라 연초 이후 누적 상승률만 15%에 달했다.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0.56%, 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미 기자 smahnl@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대출' 추진

금융위 '포용적 금융 대전환' 기존보다 금리 0.03%p 인하

금융당국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최소 0.3%포인트(p) 낮은 지방은행-인터넷은행 공동대출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전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겸 지역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지방은행-인터넷은행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은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채널(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대출 고객을 모집하고,

지방은행과 인터넷 은행이 심사와 자금 공급을 분담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이다.

우체국에서도 금융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한다. 금융위는 은행정보 비중, 인구소멸지역 여부를 고려해 고성·창녕·하동(경남), 청양·태안·단양·괴산(충청), 구례·담양·영광·함평(전남), 봉화·청도·성주(경북), 임실·순창·고창(전북), 평창·화천·횡성(강원) 지역의 총괄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은행대리업에서 취급되는 대출상품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개인신용대출상품과 은행권 정책서민금융 상품(희망씨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은행 가계대출 7.6조 ↑... 두달 연속 급증

한은, 6월 금융시장 동향 주택거래 증가·주식투자 확대 영향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원 넘게 늘며 두 달 연속 큰 폭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거래 증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진 데다 주식투자 확대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크게 늘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6조9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6월 증가폭(6조2000억원)보다 컸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18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다. 6월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늘어 전월 증가폭 3조2000억원보다 확대됐

다. 전세자금대출은 7000억원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4~5월 수도권 주택거래량 증가와 기존 분양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가 주담대 증가폭을 키웠다.

기타대출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3조7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상당폭 늘었다. 한은은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도 가계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미국·이란 종전 기대 등으로 지난달 22일 911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조정을 받았다. 외국인은 5월 국내 주식을 48조9000억원 순매도한 데 이어 6월에도 57조5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금리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지난달 8일 연 3.94%까지 오르며 연중 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미국·이란 종전 잠정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을 반영해 상승폭을 일부 줄였다.

기업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 6월 은행 기업대출은 5조1000억원 늘어 전월 10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중소기업대출은 부실채권 매상각과 일부 특수은행의 대출공급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5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대기업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은행들의 대출영업 지속과 회사채 상환자금 등 운전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상당폭 증가했다. /김주형 기자

'2026 건설의 날' 유공자 107명 포상

국토부, 건설인들 노고 격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건설의 날 기념식은 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설산업의 제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1981년 시작됐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다.

올해 기념식의 주제는 '미래를 짓는 K

-건설'이다. 인공지능(AI)이 모든 전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건설산업도 AI 기술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김문덕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희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 관련 단체장과 정부 포

상 수상자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총 107점의 포상이 수여된다. 금탑산업훈장은 40년간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기계설비 분야 발전에 공헌한 조인호 해광이앤씨 대표이사 가 받는다.

은탑산업훈장은 최상대 대도토건 대표이사 최길학 사립종합건설 대표이사에 수여된다. 동탑산업훈장은 정홍수 영신종합건설 대표이사 최이철 선진에이엔에프 대표이사 가 받는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하나금융 '청라 그룹헤드쿼터' 9월 운영

10개 계열사 직원 2200명 이전 총 4000여명 금융인력 근무

하나금융그룹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한 '청라 그룹헤드쿼터(HQ)'를 오는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 10개 계열사 직원 약 2200명이 순차적으로 이전하면서 청라에는 총 4000여명의 금융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청라 그룹헤드쿼터 준공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청라 그룹헤드쿼터는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2만8503㎡ 규모다.

오는 9월부터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비롯해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 하나펀드 서비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금융티아 이 등 10개 계열사 직원 약 2200명이 단계



청라 그룹헤드쿼터(HQ). /하나금융그룹

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기존 청라 통합데이터센터와 하나글로벌 캠퍼스에서 근무 중인 직원까지 포함하면 청라에서 근무하는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은 약 4000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번 이전으로 하나금융그룹은 2017년 통합데이터센터, 2019년 하나글로벌 캠퍼스에 이어 그룹헤드쿼터까지 구축하며 청라 하나드림타운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나유리 기자



2026년 SK의 생각입니다

시시대를아과기대는
도저이아티며이다
은노표긱년이다
소비다디긱드
노아구구비스
보아은기대도
비긱구시이
비긱구구씨다

SK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더 뉴 그랜저, AI 등 최초 적용 기술중심 상품성·경험 혁신”

현대차 테크 팝업스토어

개발과정 공유... 소비자 만족도 집중
소음 개선 등 패밀리세단 경쟁력 강화
‘플레오스 커넥트’ 기반 SDV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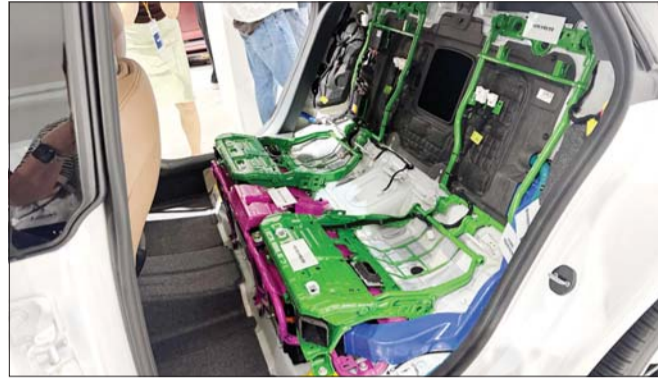
“더 뉴 그랜저는 고객의 의견을 최우선
으로 반영한 7번의 도전의 결과물이다.”

김평 현대차 MLV프로젝트3팀장은 9
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인포멀 스퀘어
에서 ‘더 뉴 그랜저 테크 팝업스토어’ 행
사를 개최하고 차량 개발 과정을 공유했
다. 김 팀장은 “앞서 출시한 그랜저 모델
에 대한 고객과 동호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했다”며
“3년 6개월여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이라도 소비자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번 더 뉴 그랜저의 핵심은 ‘최초 적용’
기술을 중심으로 상품성과 사용자 경
험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현대차가 9일 서울 성동구 인포멀 스퀘어에서 개최한 ‘더 뉴 그랜저 테크 팝업스토어’에 전시된 더 뉴 그랜저 차체·트렁크.



/양성운 기자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현대차그룹
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국내 최
초로 탑재해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했다.
최고출력 239마력, 최대토크 38.7kgf·m,
복합연비 L당 18.4km를 달성했으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인
제로백은 8.0초로 단축됐다.

기술적 완성도도 높였다. 엔진 정지각
제어 기술을 통해 엔진 재시동 시 발생하
는 진동을 최대 51% 줄였고, P1·P2 모터
의 역위상 제어 기술을 적용해 엔진 진동

을 상쇄함으로써 실내 부밍 소음을 약 3d
B 개선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세단 최
초로 2열 리클라이닝과 통풍 시트를 적용
하기 위해 배터리와 시트 구조를 새롭게
설계,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경쟁력도 강
화했다.

또 차체와 전륜 서스펜션 연결 구조를
강화하고 카울 크로스바 강성을 높여 조
향 응답성과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등 주
행 품질 역시 플래그십에 걸맞게 개선됐
다. 유압 제어 리바운드 스톱퍼와 후륜 서

스펜션 강성 보강으로 차체 거동 안정성
을 높였다. 액티브 에어 플랩과 에어커튼
등 공력 개선 기술을 적용해 하이브리드
모델의 공기저항계수(Cd)를 0.27에서 0.
26으로 낮췄다. 이는 주행 효율과 냉각 성
능 향상으로 이어졌다.

디지털 혁신도 눈길을 끈다. 더 뉴 그
랜저는 현대차 최초로 차세대 인포테인
먼트 플랫폼 ‘플레오스 커넥트’를 적용
했다. 17인치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생
성형 AI 에이전트 ‘글레오 AI’와 안드로

이드 오토모티브 운영체제를 결합해 차
량을 개인 맞춤형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
했다. 앱마켓을 통한 기능 확장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지원해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 기능이 진화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략도
반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테슬라와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기술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기술과 안전을 중심으로 적용하
고 있다”며 “디스플레이는 물론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추가 적
용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는 더 뉴 그랜저에 스마트 비
전 루프를 최초로 적용하며 개방감을 높
였다. 기존 파노라마 선루프보다 개구 면
적을 약 42% 확대하고 6개 영역별 투명도
독립 제어가 가능하며 열 차
단 성능을 30% 향상시켰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가전업계, 유럽 히트펌프 시장 공략 속도

기록적 폭염으로 냉방 수요 급증
에어컨 기반 공조사업 입지 확대

기록적 폭염으로 유럽 냉방 수요가 급
증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에어컨
을 넘어 히트펌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
고 있다. 히트펌프는 에어컨과 같은 냉매
기술을 활용해 냉난방과 온수 공급을 함
께하는 설비다. 냉방 수요 확대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의 탈탄소 정책이 키우는
난방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9일 유럽히트펌프협회(EHPA)에 따르
면 올해 1분기 유럽 11개국의 가정용 히트
펌프 판매량은 약 57만5000대로 전년 동
기(49만4000대)보다 17% 증가했다.

프랑스·독일·폴란드 3개국의 판매량은
평균 25% 늘었다. 지난해 역성장을 겪었
던 유럽 히트펌프 시장은 에너지 가격 상
승과 난방 전환 수요를 바탕으로 회복세
로 돌아섰다.

성장을 이끄는 배경은 정책과 에너지
가격이다. 벨기에는 화석연료 난방 규제
와 신축 건물 히트펌프 부가가치세 인하
를 시행했고 영국은 보일러 교체 지원 제

도를 운영하며 판매 증가를 이끌었다. 에
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기 기반
난방 전환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양사도 기존 에어컨 사업을 기반으로
유럽 공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유럽
의 에어컨 보급률은 20% 안팎에 그친다.
최근 폭염이 잦아지면서 보급률이 낮았
던 유럽에서도 냉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이탈리아와 프
랑스 등 주요국의 에어컨 판매가 두 자릿
수 성장했다고 밝혔다.

LG전자도 유럽 물량을 담당하는 창원
생산라인을 지난 4월부터 완전 가동하고
있다.

양사는 기존 공조사업을 기반으로 히트
펌프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노르웨이 온수 솔루션 기업 ‘OS
O’를 인수해 히트펌프와 온수저장장치를
결합한 통합 패키지 공급 체계를 구축했
다. 남유럽 5개국에서 10만 가구 이상에
히트펌프를 공급했다.

지난 3월 유럽 최대 공조 전시회인 ‘M

CE 2026’에서는 주거용 히트펌프 신제품
을 공개했다. 또 최근에는 108도의 고온수
를 공급하는 산업용 히트펌프를 국내 제
지공장에 공급해 가동을 시작하며 산업용
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히트펌프 브랜드 ‘EHS’ 라
인업을 확대하며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
하고 있다.

올해 유럽 시장에 냉난방과 온수 공급
을 통합한 ‘EHS 올인원’을 출시했다. ‘M
CE 2026’에서는 지난해 인수한 독일 공조
기업 플렉트그룹과 처음으로 공동 전시관
을 운영했다.

다만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는 변수
다.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는 이동식 에어
컨 ‘포타스플릿’을 앞세워 지난 5월 독일
스페인과 프랑스 출하량도 108% 증
가했다.

업계는 중국 업체들이 냉방 제품으로
확보한 판매망을 히트펌프 등 난방 시장
까지 확대할 경우 유럽 공조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S전선, 국내 최고용량 해저케이블 상용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정조준

LS전선이 국내 최고 송전 용량의 초고
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 상용화
에 나서며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공략에 속도를 낸다.

LS전선은 국내 최초로 525kV·80°C급H
VDC해저케이블의 PQ(Pre-Qualificatio
n) 시험을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PQ 시
험은 케이블의 장기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
하는 국제 인증 절차다. 이번 시험 통과로
LS전선은 향후 사업 주주 시 형식시험(Ty
pe Test)만 거치면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제품은 도체 허용 온도를 기존 70
°C에서 80°C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25%까지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같은
구간에서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어 장
거리·대용량 송전망에 적합하며 높은 전
압과 운용 온도를 견디는 초고압 절연 기
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LS전선은 이번 PQ 통과로 서해안 에

너지고속도로 사업에 적용 가능한 고품량
해저케이블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 서해
안 에너지고속도로는 서남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 등 대규모 수
요지로 보내는 전력망 사업이다. 발전지
와 수요지 간 거리가 먼 만큼 대용량 전력
을 안정적으로 보내는 HVDC 해저케이블
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S전선은 제주 2·3연계사업과 유럽 테
넷(TenneT) 프로젝트 등에 HVDC 케이
블을 공급하며 관련 실적을 쌓아왔다. 여
기에 LS마린솔루션의 해저케이블 시공
역량을 결합해 제조부터 해상 포설까지
아우르는 턴키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PQ 시험 통과
는 차세대 국가 전력망 시장 공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LS마린솔루션과의
제조·시공 턴키 역량을 바탕으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글로벌 HVDC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시스템, 해양무인체계 사업 확대

자체개발 30t급 무인수상정 진수

한화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30톤급 무인
수상정을 진수하며 해양무인체계 사업 확
대에 나선다. 해상 시험을 통해 인공지능
(AI) 자율운항과 글로벌 표준 아키텍처를
검증하고 이를 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한
140톤급 무인수상정 개발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자체 투자로 개발한 30톤
급 무인수상정을 지난달 초 부산 가덕대
교 인근에서 진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무인수상정은 부산과 거제 징북항
을 오가며 해상 시험에 들어갔으며 2027
년 말까지 AI 기반 자율운항 기술과 개방
형 아키텍처 완성도를 검증하는 테스트베
드로 활용된다.

한화시스템은 미래 해군의 해양 유·무
인 복합전투체계 전환에 맞춰 약 700억원



한화시스템 30톤급 무인수상정이 거제 징북항
에서 해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시스템

을 자체 투자해 30톤급과 140톤급 무인수
상정(USV)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정찰용 무인수상정 ‘해
령’에 적용한 자율운항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규격 기준 실증을 마쳤으며 앞으로
미 해군의 무인 해양 자율성 아키텍처인
UMAA(Unmanned Maritime Autono
my Architecture) 기준에 맞춘 글로벌
규격 호환성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LG전자, 글로벌 상업용 세탁시장 선점 나서

‘LG 프로페셔널’ 출시... 6종 구성

LG전자가 인공지능(AI)과 고효율 기
술을 결합한 대용량 상업용 세탁 솔루션
으로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
략에 속도를 낸다. 상업용 세탁기전 제품
군을 확대하며 성장하는 글로벌 세탁 시
장 수요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대용량 상업용 세탁기전 ‘L
G 프로페셔널’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LG 프로페셔널은 30·25·20kg 세탁기,
30·25kg 건조기, 세탁과 건조를 한 대로
모두 수행하는 일체형 세탁건조기 콤보
(세탁 25kg, 건조 16kg) 등 총 6종으로 구
성된다. 이달 유럽을 시작으로 아시아, 북



‘LG 프로페셔널’ 제품 이미지. /LG전자

미 등 주요 시장에 LG 프로페셔널을 순차
출시한다.

LG 프로페셔널은 핵심 부품 기술력에
AI를 더한 ‘AI 코어테크’를 기반으로 대
용량 세탁물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세탁·
건조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이 강
점이다. AI가 세탁물 무게를 분석한 뒤

물 사용량을 조절하고 건조 조건을 최적
화해 시간은 물론 물과 전기 사용량을 줄
인다.

세탁기는 최대 1100rpm 고속 탈수로
세탁 후 잔류 수분을 줄여 건조 시간을 단
축한다. 1100rpm은 세탁조가 1분에 최대
1100회, 1초에 약 18회 회전하는 속도다.

안정적인 구동을 위한 다이내믹 볼 코
어 시스템*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자이
로 센서로 드럼 내부의 불균형을 감지하
고 자동으로 보정해 고속 탈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소음을 줄인다.

건조기와 일체형 세탁건조기에는 저온
제습 방식의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를 적
용했다.

LG전자는 제품 공급뿐 아니라 설치,
운영, 유지보수, 관리까지 고려한 통합 B
2B 솔루션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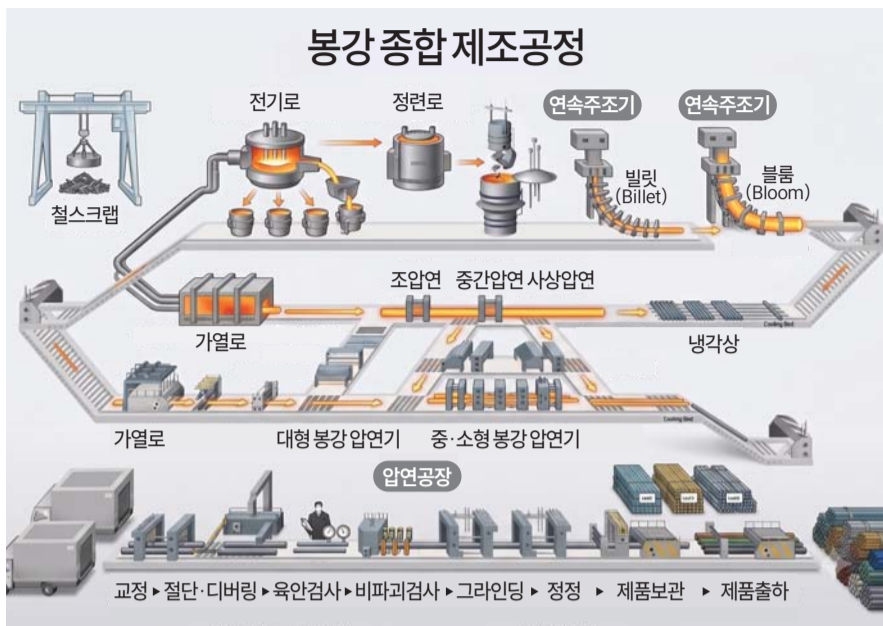
中 봉강 관세 부가면 원가 폭탄... 단조 中企 “버틸 수 없다”

세아베스틸 등 반덤핑 제소에 무역위, 중국산 봉강 조사 착수 9월 예비판정·내년 2월 결론 단조업계 “수출 경쟁력 약화” 수출용 관세 면제·환급 요청 국산 전환 지원·유예기간 요구

“중국산 봉강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단조회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아예 중국 단조회사에 일감을 맡길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뿌리산업은 누가 지키느냐.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단조 중소기업 한 관계자)

중국산 수입 봉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단조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가격이나 원자재 값 상승과 중국 단조업체와의 경쟁력 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덤핑 관세까지 추가로 물 경우 앞진데 뒷진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단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수출용 원자재에 국한한 관세 면제, 국내산 봉강으로 대체시 제도적 지원 등이 가능할지 귀추가 쏠리고 있다.

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국단조공



업협동조합(단조조합)은 지난달 말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중국산 봉강 반덤핑 제소에 따른 중소단조업계 구제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단조조합은 ▲해의 수출용 부품 기공을 위한 수입 봉강 물량 관세 부과 대상 제외 또는 사후 100% 환급 ▲국산 소재 전환시 발생하는 단가 차액 보전을 위한 정부 매칭펀드 조성·수출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책 수립 ▲국내 생산 불가 항목·대체 불가

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6~12개월 적용 유예기간 보장 ▲별도의 공회회 개최를 통한 중소 단조·가공업계 목소리 반영 등의 대책을 건의했다. ‘봉강’(Bars and rods of steel)이란 원형, 정방형, 육각형 등의 형태로 된 길이가 긴 강재의 한 종류로, 이수가 되고 있는 합금강 봉강은 자동차 부품, 기어, 샤프트, 베어링, 건설장비, 농기계, 산업 기계 등에 두루 쓰이고 있다.

그런데 합금강 봉강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세아베스틸과 세아철원특수강이 중국산 봉강의 반덤핑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지난 2월 말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아철원특수강은 세아베스틸주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각 나라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관세장벽이 낮은 한국이 이들 제품의 주요 수입처가 되고, 결국 국내 철강산업에 심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봉강의 덤핑률은 30.17%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철강회사들이 시세보다 30% 가량 싸게 팔고 있다는 의미다. 무역위는 지난 5월 21일 세아베스틸이 신청한 중국산 봉강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으며 오는 9월 예비판정을 내린 후 내년 2월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품목은 합금강을 압연 또는 단조해 생산한 봉강(HSK 코드 16개 품목)이다. 불똥은 국내 단조 중소기업들로 튀었다. 국내·중국산 봉강을 함께 유통하는 한 회사 관계자는 “중국산 봉강이 한국에 들

어온 것은 15년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중국산이 시장을 많이 잠식했다. 중국산 봉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최종 확정되면 지금보다 봉강 가격이 최대 30~40% 정도 오를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연관 제조사들은 가격 경쟁에서 크게 밀리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단조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탄소강·합금강을 사용하는 봉강은 건설중장비, 농기계 등의 부품 제조에 주로 쓰인다. 특히 캐터필러(Caterpillar), 존 디어(John Deere) 등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제품은 치열한 수주 경쟁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싼 중국산 봉강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단조업계 한 관계자는 “단조에서 원자재 값 비중은 60% 가량에 달한다. 중국산 봉강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면 원가가 최소 15% 상승할 것이다. 관세 부과로 원가는 올라가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단조와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납품처와의 협상력에서도 밀리는 등 사면초가 상태”라고 토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애경케미칼, 신소재 투자 결실... 하반기 매출 본격화

TPC 국내 공급망 구축 속도 하드카본 음극재 증설 추진 아라미드·ESS 소재 시장 공략

애경케미칼이 준비해온 스페셜티 소재 사업이 하반기 실적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아라미드 원료 공급망을 겨냥한 테레프탈로일 클로라이드(TPC)는 4분기 매출 반영이 기대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나트륨이온배터리 시장에 대응하는 하드카본 음극재는 전주 공장 증설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다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케미칼의 TPC 사업은 국내 아라미드 원료 조달 구조를 보완할 신규 소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

다. TPC는 방탄복과 항공우주 소재, 광케이블 보강재 등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 의 핵심 원료다. 그동안 국내 아라미드 업체들은 TPC 상당 물량을 해외에서 조달해왔다. 수입 제품은 통상 고체 상태로 들어온 뒤 국내 공장에서 다시 액상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운송비와 가공 부담이 뒤따랐다. 애경케미칼은 올해 1분기 울산공장에 TPC 생산공장을 준공하며 국내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TPC는 액상 형태로 공급할 수 있어 수입 제품을 다시 액상화해야 했던 고객사의 공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반기 고객사 계약과 공급 일정이 구체화되면 4분기부터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주요 수요처로는 효성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태광산업 등 아라미드 생산업체들이 거론된다. 특히 태광산업이 아라미드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TPC 수요 기반도 함께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생산 공법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애경케미칼은 TPC 생산에 광연소화 공법을 적용했다. 기존 일부 생산 방식보다 환경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공법으로,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생산 역량이 해외 고객사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는 나트륨이온배터리용 하드카본 음극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현재 고객사 파일럿

테스트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공장에 연산 1300톤 규모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능력을 2만톤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드카본은 나트륨이온배터리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음극재로 꼽힌다. 나트륨 이온은 리튬 이온보다 이온 반경이 커 기존 흑연 음극재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하드카본은 내부 구조에 여유가 있어 나트륨 이온의 저장과 이동에 적합한 소재로 분류된다. 나트륨이온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리튬이온배터리보다 불리하지만 원재료 조달 부담이 작고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中企 우수제품 판로 지원 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공고하고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시스, 프리미엄 주방가구 공급 확대

라스텔리, 부산 이어 반포 단지 납품 LX하우시스가 독점 수입하고 있는 이탈리아 주방가구 ‘라스텔리(rastelli)’와 ‘쿠치네 루베(CUCINE LUBE)’가 재건축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주목받고 있다. 9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라스텔리’를 지난달부터 입주하고 있는 ‘부산 드파인 광안’에 공급한데 이어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의 주방가구 공급사로 선정돼 납품을 앞두고 있다. ‘라스텔리’는 이탈리아의 대표 하이엔드 주방가구 브랜드로 카피 라시드, 페루치오 라비아니 등 세계적인 산업디자이너들이 디자인에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납장 구성 등에서 인체 공학적인 설계로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세계 최고급 아파트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공되고 있다. ‘쿠치네 루베’도 이탈리아 주방가구 톱(Top) 브랜드 가운데 하나로 전세계 약 80개국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LX하우시스는 그동안 아파트 재건축 단지 등 B2B시장 위주로 공급하던 ‘라스텔리’와 ‘쿠치네 루베’를 일반 개인 고객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그룹, 청주서 수소 순환경제 시동

하수 슬러지 활용해 청정수소 생산·공급 현대자동차그룹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내에 첫 자원순환형 청정 수소 생산(W2H·Waste-to-Hydrogen) 시설을 구축하고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9일 HTWO 에너지 청주 준공식을 진행했다. 서강현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담당 사장은 “HTWO 에너지 청주는 지역의 폐자원을 청정 에너지인 수소로 전환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기반의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한 사례”라고 말했다. HTWO 에너지 청주는 현대차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첫 번째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충전 복합사업장이다. 청주 지역 안에서 발생한 하수 슬러지 폐기물로부터 추출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 및 공급한다. /양성윤 기자 ysw@

LS일렉트릭 아세안 전력시장 공략

베트남서 솔루션 대거 공개 LS일렉트릭이 베트남을 거점으로 아세안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현지 전시회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국가 전력망, 스마트팩토리용 솔루션을 공개하며 전력 수요가 늘고 있는 아세안 시장에서 패키지형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은 현지시간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리는 ‘일렉스 베트남 2026(EL ECS VIETNAM 2026)’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참가 기업 중 최대 수준인 16부스(144㎡)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전환(DX), 스마트 전력관리, 스마트팩토리 등 4개 존을 운영한다. /원관희 기자

CISO 권한 커지고, 정보보호 공시는 의무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통신업계, 보안 규제 대응

KT,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두고 전사 보안 리스크 관리 등 박차 4조 투자해 전문인력 역량 강화
SKT, 아마존 출신 CISO 영입 차세대 시스템 구축, '레드팀' 가동
LG U+, 年 4회 실무협의회 열어 7000억 투입해 보안인력 4배 확대

정부가 정보보안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면서 통신업계가 정책 대응에 나섰다. 올해 기업 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강화에 이어 내년부터 정보보호 공시의 의무가 확대되면서다.

9월 정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의 보안 조직 체계와 권한이 법적으로 강화된다.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업 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임원급으로 격상되고 업무 범위도 인력관리와 예산 편성, 이사회 보고까지 넓어진다. 또 정보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신설해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자체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지난 8월 정부가 주최한 정보 보호의 날 연례 행사에 통신 3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KT는 CISO는 올해 대표이사 취임이



박윤영 KT 대표, CISO 이상운 전무, CPO 김창오 상무가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KT

후 외부 영입한 금융결제원 출신 이상운 전무다. 앞서 2014년 조직 개편을 통해 정보보안단(현재 정보보안실)을 신설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직급을 상무에서 전무로 격상했다. 현재 대표이사 직속 기구로 정보보안 전략위원회와 정보보안 실무 협의체를 두고 전사 보안 리스크 관리와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SK텔레콤의 보안 컨트롤러위는 지난해 통합보안센터 출범과 함께 아마존 디바이스 보안 담당 출신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맡고 있다. 통합보안센터는 지난해 해킹 사태 이후 AI·DT 산하 정보보호실에서 대표이사 직속기구로 격상됐다. 다만 이 CISO 직급과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유무는 별도로 외부

에 알려지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2023년부터 쿠방 보안 책임자 출신 흥관희 전무가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겸임하고 있다. 매년 4회 정보보호 실무협의회를 열어 전사 보안 조직 협업과 대내외 보안 이슈에 대응 중이다.

내년에는 정보 보호 공시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된다.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기업 및 상장사들은 정보보호 투자액 산정과 전담 인력 집계부터 보안 전략과 사고 대응 체계, 거버넌스까지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KT는 정보 보안 분야에만 3년 간 약 4조원을 투자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과 함께 전체 보안 인력을 2배 이상 늘린다. 내부 전문인력 역량도 강화해 조직 내 보안 전문성도 강화한다. 현재 정보보호 전담인력 317명 중 내부 전문 인력은 164명이다. 내년에는 통합보안관제 로그 분석 자동화와 AI 기반 공격을 방어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위협에 대응한다. 또 조직 전반으로 보안 역량을 넓힌다. 보안 전략 확립을 위한 레드팀도 운영한다. 실제 공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모의 공격을 수행하고 취약점을 점검하는 조직이다.

SK텔레콤은 향후 5년간 약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보 보호 인력은 기존 대비 2배 확대한다. 내년에는 AI 보안 거버넌스 확립과 함께 분산된 트러스트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차세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잠재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고 즉시 해결하는 모의해킹 전담조직 '레드팀'을 가동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LG유플러스도 5년간 7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한다. 현재 정보 보호 인력은 351명으로 향후 비중을 확대한다. 올해 중반까지 보안 인력을 정규직 기준으로 4배 규모로 확대한다. 보안 성숙도 핵심 지표인 제로트러스트 성숙도(ZTA)를 한 단계 향상하고 취약점 점검 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한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네오위즈 글로벌사업그룹장에 '크리스 정' 선임



네오위즈가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게임업계 베테랑인 크리스 정(사진)을 글로벌사업그룹장으로 영입했다. 조직

개편과 함께 글로벌 퍼블리싱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지식재산권(IP)의 프랜차이즈화를 비롯해 신규 IP 발굴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네오위즈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크리스 정을 글로벌사업그룹 그룹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크리스 정은 국내외 게임업계에서 개발과 퍼블리싱을 두루 경험한 글로벌 사업 전문가다. 유럽 게임사 위게임에서 최고제품책임자(CPO)를 맡아 '월드 오브 탱크'와 '월드 오브 워십' 등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총괄했다. 게임 개발사 모티가를 설립해 신규 IP '자이겐틱'을 개발했으며, 엔씨소프트에서는 본사 사업 본부장과 미국 법인장을 역임하며 아시아와 북미 시장 사업을 이끌었다.

이번 인사는 조직 개편과 함께 이뤄졌다. 네오위즈는 조직을 신작개발그룹, 글로벌사업그룹, 라이브게임사업그룹으로 재편했다. 라이브게임사업그룹장은 조민구 올림포스본부장이 맡아 피파 웹보드 게임과 '브라운더스트' 등 주요 라이브 게임의 운영을 총괄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글로벌 무대에서 AI 표준 협력 논의... "신뢰 기반 마련"

스위스 'AI 포 콧 글로벌 서밋'과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화' 참가 AI 발전에 인권 원칙 보장 강조

KT는 UN이 주관하는 글로벌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AI) 표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AI 포 콧 글로벌 서밋'에서 KT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신뢰와 AI 인프라'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했다. 행사는 UN 산하 ICT 전문가가 주관하는 자리로, 정부와 산업계 등의 의사 결정자들이 참여했다.

KT는 이날 세션에서 에이전트 AI 시대의 신뢰 기본 요소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신뢰 기본 요소에는 신원, 동의, 검증 가능성이 있다. 에이전트 주체와 허가 범



KT AX미래기술원 Tech전략담당 박완진 상무(왼쪽 네번째)가 지난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화에서 발표하고 있다. /KT

위, 증명 여부 등을 의미한다.

KT에 따르면 트래픽의 중심이 사람-시스템에서 사람-에이전트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에이전트가 안전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신뢰 기본 요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체계를 통해

AI가 기업과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개방형 상호 운용 표준과 중립적인 신뢰 인프라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열린 '글로벌 AI 거버넌스 대화'에서는 AI 거버넌스 모범 사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이 포용적 AI를 위한 국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KT는 향후 AI 발전에 UN이 정립한 인권 원칙이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부 세션에서 강조하며 예방·보호·감시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AI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이를 자사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조민선 기자

SK AX, 제조 현장 RX 지원 박차

'제조 RX 풀스택 서비스' 공급

SK AX는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RX(로봇전환) 풀스택 서비스'를 공급해 운영 혁신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제조업이 당면한 인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등을 해소함으로써 공장 전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율형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로봇과 생산관리시스템(MES), 설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공장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자율형 제조 환경 구현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 제조 현장엔 설비 간 간섭과 물류 병목, 작업자 동선 충돌 등 변수로 인해 로봇 도입 효과를 기대만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물류 흐름이 복잡한 반도체, 작업 조건이 수시로 변하는 조선 산업 현장에서는 규칙 기반 프로그래밍만으로 안정적인 자동화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조 RX 풀스택 서비스'는 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피지컬 AI 등 기술 융합으로 로봇 도입의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검증한다. 이후 현장 자율 제어, 공장 전체의 통합 운영까지 전 단계를 윈스톱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트윈 단계에서는 실제 공장의 도면, 설비 배치, 작업자 동선, 자재 흐름, 공정조건에 따른 실시간 품질변화 등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다.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면 비전-언어-행동모델(VLA) 모델 기반의 피지컬 AI가 작업을 능동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제조 환경에서도 작업의 정밀성과 연속성을 극

대화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통합 운영이다. 미래 제조 현장에서는 효율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등 이기종 로봇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기종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이다. 다양한 제조사의 로봇들을 하나의 운영 체제로 묶고, 생산관리시스템(MES)과 같은 유관 시스템과 연계해 전체 공정을 통합 관제한다. 특정 공정에서 지연되는 등 이상 상황을 전체 생산 운영에 즉시 반영하고 로봇의 작업 지시와 경로 등을 최적의 상태로 조정한다. /조민선 기자

크래프톤 '서브노타카 2' 첫 번째 업데이트 실시

크래프톤의 크리에이티브스튜디오인 노운 윌즈가 오픈월드 생존 제작 게임 '서브노타카 2'의 첫 번째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오픈 디벨롭먼트 방식을 통해 게임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크래프톤은 언노운 윌즈가 플레이어 피드백을 기반으로 서브노타카 2의 첫 번째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초반 게임 경험과 핵심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플레이어 능력 강화 시스템인 '바이오모드'를 확장했다. 코탈 거둔과 악습 유적 지역에 바이오 연구 장치 2개를 추가해 해금 가능한 바이오모드를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늘렸다. 바이오스캐너를 통해 생물을 스캔하면 패시브 바이오모드 슬롯도 추가로 해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게임 내 도감 역할을 하는 PDA 데이터뱅크도 개편했다. 기존에는 음성 로그가 자동 재생됐지만 이번 업데이트부터는 플레이어가 원하는 시점에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합동 플레이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음성 로그가 강제로 재생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탐험과 생존 요소도 강화했다. 난파선에는 새로운 이동 경로와 산소 퍼즐을 추가했으며, 수면 위와 기지 내부에서도 달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테드폴 선착장과 제작기 배치 편의성을 높이고 보관 전용 건설물을 추가하는 등 기지 운영 기능도 손봤다. 이 밖에도 렌더링 성능과 크리처 행동, 사용자환경(UI) 등 전반적인 게임 품질을 개선했다. /최빛나 기자



G-ROUND ART FAIR 2026

9.17

9.20

성도컨벤시아
101시어

Beyond Art

예술을 넘어서... 후미리즘이 되다

글로벌 그라운드 아트페어 2026

| 주최 세계일보 | 주관 GAF조직위원회 | 후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문의 : 02-6743-3303

불장에도 식은 공모시장... 강화된 상장 심사에 IPO '절벽'

신규 상장기업 전년비 55.3% 감소
상장 후 평균 수익률 약 150% 기록
전문가 "IPO 제도 등 정상화해야"

코스피가 8000선을 넘나들고 있지만, 정작 기업공개(IPO) 시장에는 찬바람이 부는 모양새다. 증시의 진입 문턱이 높아진 데다 정부가 '중복 상장 금지' 원칙을 내세우면서 기업들의 신규 상장 계획이 줄줄이 발목 잡혔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 단순한 흥행보다 IPO 제도 정상화를 통한 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한 기업은 1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곳 대비 55.3% (21곳) 감소했다. 이 가운데 코스피 상장은 단 1건이었으며, 나머지 16곳은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자금 조달 규모도 줄었다. IR큐터스에 따르면 올해 상장 기업들의 공모 규모가 1조1327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2095억원 대비 48.7% 줄어들며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급은 줄었지만 시장 수요가 없는 것은



ChatGPT로 생성한 '위축된 기업공개(IPO) 시장' 관련 이미지.

아니다. 상반기 상장기업 17곳 가운데 14곳이 희망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공모가 확정했으며, 이날 기준 상장 이후 평균 수익률도 약 150%를 기록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흐름도 긍정적이다. 올해 상반기 평균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46.32%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26%포인트 증가했다. 기관 배정 물량 중 최소 40%를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40% 우선 배정제도'가 올해 전면 시행된 영향을 풀

이된다.

그렇다면 IPO시장을 통한 자금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 증권가에서는 높아진 한국거래소의 심사 눈높이를 주된 배경으로 꼽는다. 한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 기준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 IPO가 급감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IPO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000억원에 못 미치는 기업은 신규 상장이 쉽지 않다는 인식까지 생겼다"고 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IPO 담당자는 "거래소 측에서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주가가 폭락해 상장 폐지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언급하면서 심사요건을 까다롭게 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규 상장뿐 아니라 증시의 상장 유지 조건도 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최근 중소형 종목이 모여 있는 코스닥의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 코스닥의 상장 유지 조건은 시가총액 40억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50억원으로 높아졌다. 2027년에는 200억원, 2028년부터는 300억원까지 올라갈 계획이다. 매출 요건 역시 기존 30억원에서 내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 등으로 점차 상향될 예정이다. 신규 상장의 문턱이 높아진 것도 앞으로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 100억원에 못 미치는 '부실 기업'을 내쫓을 계획인 만큼 애당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의 상장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는 가격제한폭 제도가 걸림돌이란 지적도 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 확대는 단

기 투기 수요를 자극해 공모주 시장을 장기 투자보다 단기 차익 중심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며 "IPO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국내 지수의 왜곡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중복 상장 금지' 기조 역시 울려 IPO 건수가 줄어든 핵심 요인이다. 중복 상장 금지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장의 필요성을 따져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제도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IPO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장 폐지 등 시장의 '출구'뿐 아니라 '입구(IPO)'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이번 제도가 시장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장 유지 기준 강화뿐 아니라 신규 상장기업의 질적 수준 역시 함께 높아져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는 신규 투자자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내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서학개미, 기술주 조정에도 반도체 담았다

해외주식 Click

SOXL 5억2759만달러 순매수
메모리·레버리지 ETF 등 전반 투자

미국 기술주 조정에도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반도체를 향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장비·메모리 기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최근 조정장을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8일까지 서학개미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테일리 반도체 볼 3배 ETF(SOXL)를 5억 2759만달러 순매수하며 가장 많이 사들였다. 다음으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테일리 MSCI 코리아 볼 3배 ETF(KORU)로 순매수 규모가 9943만달러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학개미들의 투심이 반도체 레버리지 종목인 SOXL에 몰린 모습이다.



ChatGPT로 생성한 '기술주 조정 흐름을 보인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에 집중 투자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이달 들어 7일(현지 시간)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3.66% 급락하며 약세를 이어갔다. 반도체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자 서학개미들은 저가매수 타이밍으로 인식하고 더욱 공격적인 베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SOXL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 샌디스크(5286만달러)와 샌디스크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트레이더 2X 롱 샌디스크 데일리 ETF(9823만달러), 글로벌 반도체 장

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7715만달러) 등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에 올렸다. 단순히 반도체 제조사에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장비와 메모리, 관련 레버리지 ETF까지 담으며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AI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이며, 샌디스크는 낸드플래시 기반 저장장치 기업이다. /신하은 기자

노령연금 감액, 월 519만원이 기준선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발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알하면 연금이 깎일까. 고령층 재취업이 늘면서 '알하는 은퇴자'에게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니다. 올해부터는 감액 기준선이 높아져 월평균 소득금액이 약 519만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기준선을 넘는 순간 감액이 시작되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어 은퇴 후 소득 설계가 더 중요해졌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9일

'얼미를 벌 때 연금이 깎이나?'를 주제로 한 THE100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구조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을 설명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별 감액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줄여 지급하는 제도다.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

득월액인 'A값'이다. 2026년 기준 A값은 약 319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25%까지 연금이 감액된다. 다만 월 감액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의 50%를 넘을 수 없고, 감액도 수급 개시 후 5년 동안만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감액 기준선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넘으면 곧바로 감액 대상이 됐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기준이 'A값+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약 519만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美 규제 역설... 中 반도체 생태계 '재평가'

미래에셋자산운용 온라인 세미나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동반 성장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앞당기며 산업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처럼 특정 기업의 추격 여부에 주목하기보다 설계부터 장비, 파운드리,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투자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9일 TIGER ETF 공식 유튜브 채널 '스마트 타이거'에서 '중국 반도체 현황과 자립 골기'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희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그동안 중국 반도체는 미국 제재를 받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제재가 오히려 자립을 촉진했고, 그 성과가 기업 실적으로 확인되면서 주가도 빠르게 재평가되고 있다"며 "이제는 특정 종목이 아니라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를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애플의 움직임이 중국 반도체 위상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동안 미국 빅테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에서만 메모리를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애플이 중국 D램 업체 CXMT 메모리 구매를 위해 미국 정부에 규제 승인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반도체 성장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규제 강화가 오히려 국산화를 촉진한 점을 들었다.

정 본부장은 "올해 1~4월 일본산 전공정 장비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24.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중국 전공정 장비 4개사의 1분기 매출은 27.7% 증가했다"며 "외국산이 빠진 자리를 중국산 장비가 채우는 구조가 밸류체인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대표 파운드리

리 SMIC는 매출의 약 85%를 내수에서 올리는 구조여서 미국 제재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울러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도 성장 동력으로 꼽혔다. 2014년 이후 조성된 반도체 육성기금인 '대기금' 규모가 지방정부 펀드를 포함해 약 161조원에 달한다.

실적 역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중국 AI 반도체 대표 기업인 캄브리온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9.6% 증가했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SMIC가 점유율 5.3%로 3위에 올라 매출이 16.2% 증가했다. D램 업체 CXMT는 글로벌 점유율이 1년 만에 3%에서 8%로 확대되며 4위권으로 올라섰다.

정 본부장은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투자 포인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반도체 투자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중심이라면 중국은 설계(팹리스), 장비, 파운드리, 메모리, 후공정(OSAT)까지 정부 정책과 투자가 동시에 확산되는 구조"라며 "설계 기업이 성장하면 파운드리가 수혜를 받고, 파운드리가 증설하면 장비 업체가 성장하고, 다시 후공정 물량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ETF를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대표 상품으로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이 ETF는 캄브리온과 하이곤(Hygon), 기가바이트 등 팹리스부터 NAURA와 AMEC 등 장비, SMIC와 파운드리, 후공정 기업까지 중국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ETF는 지난 6월 기준 최근 1주일 수익률 24.1%, 최근 3개월 100.8%, 연초 이후 98.9%를 기록하며 국내 상장 중국주식형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조직 쇠신하고, 농가에 2200억 지원... 농협 대전환 본격화

감사 조직 독립성 높여 투명성 강화
외부위원 중심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첨단기술 활용한 농업 경쟁력 강화

농협이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부문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한다. 인사 부문의 혁신 및 적자 일로의 계열사 체질개선을 위한 실천 과제도 도입한다.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조직 쇠신을 골자로 한 '농협 대전환' 방안을 수립하고 전사적인 실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을 통해 농협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 과제를 조기에 실행하고, 외부의 개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한다는 목표다. 개혁안에는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업인·조합원 중심의 지원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도 담겼다.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농협 대전환 방안은 ▲중앙회 운영 쇠신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가 2개의 주요 축이다. 이어 1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농협은 이를 통해 '조합원에게 힘이 되는 농협', '농업소득 3000만 원 시대를 주도하는 농협'의 정착을 지향하게 된다.

우선 '중앙회 운영 쇠신' 부문에서는 투명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높여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적자 계열사의 체질 개선도 병행한다. 외부위원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도 설치해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돌봄사업을 확대한다. 또 중앙회 기능을 농업인·조합원과 농축협 중심으로 재편해 현장지원 역량의 강화를 추진한다.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22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프로젝트 '힘내! 우리 농업'을 추진한다. 생산비와 유통비,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실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농협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와 연계해, 햇빛연금 확산 및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또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확

산과 AI 도축로봇 도입 등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하고, 농축산물 판매 역량을 강화해 경제사업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금융'도 실시한다. 총 8876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감면을 추진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에 발맞춰 전북권에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금융지원 거점인 올해 3분기 중 설치할 계획이다. 이른바 'NH금융허브'(가칭)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농협 대전환은 농협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조기 이행은 물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실천 전략"이라며 "16개 실천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농업인·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공정위, 미래에셋·코빗 기업결합 승인

금융권 첫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공정위 "경쟁 제한 가능성 낮아"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대형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가 탄생했다. 독과점 체제가 공고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은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운영사 주식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건이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취득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심사를 진행했다. 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 출시 시 증권 시장 내 진입장벽 유발 여부, 향후 가상자산 기반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이 출시될 경우 자산운용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결론 내렸다. 당사회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국내 시장은 1위 업비트(약 69%)와 2위 빗썸(약 28%)이

97%를 독식하고 있으며, 코인원(약 2%), 코빗(약 0.5%), 고팍스(약 0.1%) 순으로 이용자 쏠림 현상이 심하다.

공정위는 "현재 수준의 유동성으로는 경쟁제한적 효과를 일으키기 부족하고, 시장의 집중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고 심사 결과 이유를 설명했다.

비록 현재 점유율은 낮지만, 자본력을 갖춘 대형 금융그룹이 가상자산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고착화된 시장 구조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결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앞으로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무역안보서 산업안보로... 정부 전략 전환

산업부 '2026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국 간 기술·자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국제공조 중심의 '무역안보'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주도적 '산업안보'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산업안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

양 실장은 "기존의 무역안보가 국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최근 국제질서가 파편화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수출통제,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안정화 등 산업안보를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식전 행사로 열린 전문가포럼에서

는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산업무역안보포럼'이 정부에 '무역안보 2.0을 위한 제안'을 전달했다. 포럼은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 중심 무역안보 재정립, ▲적극적 무역안보 협상전략 추진, ▲정부·민간 공동 무역안보 책임 이행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향후 제도 설계에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주요국들의 첨단기술 보호 조치와 수출통제로 국내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맞춤형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수출바우처 사업 내에 '수출통제 컨설팅' 메뉴를 신설하고 애로기업 대상 신규 지원을 시작했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산업부 수출허가 담당자, 주요 로펌, 무역안보 관리원 등이 참여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집단민원도 선제 대응... 범정부 갈등관리

권익위, 한국갈등학회 학술대회 주최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첨단 산업구조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송변전설비 및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F NTECH)에서 '2026년 한국갈등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범정부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 국무조정실, 한국전력공사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AI·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 거버넌스와 지역 공존: 전력망 갈등과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학계

와 관계 부처, 갈등관리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해결과 사회조정 제도화' 기획 세션을 통해 그간 사후 수습에 치중했던 갈등관리 방식을 사전 예방과 조기 개입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권익위는 발제를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구조에 빛대 이해관계가 중첩된 집단 갈등을 교섭·협상·조정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해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집단갈등 예측 시 관계 기관이 조기에 개입해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정부 공동책임 구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권익위의 집단민원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유형과 조정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외국인 장기체류 감소 비전문인력 입국도 위축

데이터처, 2025 국제인구이동통계

국내에 입국해 90일을 넘겨 체류한 외국인 수가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비전문인력을 비롯해 단기방문 체류자격 입국자 등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급증하던 외국인 입국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수는 4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3000명(-5.1%) 줄었다. 이는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해 상주지를 옮긴 외국인을 집계한 수치다. 외국인 입국자는 2018년 49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2019년 43만8000명으로 소폭 감소한 뒤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23만3000명, 2021년 22만1000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바다 폐로프, 고부가가치 재생로프 변신

해양환경공단, 자원순환 업무협약

해양환경공단이 민간기업과의 협력하여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추진한다.

공단은 최근 동양제강과 해양폐기물(합성로프)의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이를 재생로프로 재활용함으로써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공단의 안정적인 수거 인프라'와 '민간의 고도화된 재생 가공 기술'이 결합한 사례다. 실질적인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 해양에서 수거된 합성로프는 이물질이 붙어 있거나 혼합 재질로 구성돼 재활용에 한계가 있어 대부분 소각 처리돼 왔다. 이에 양측은 폐로프를 친환경 자원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해양환경공단과 동양제강 간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업무협약식.

공단은 해양폐기물 재활용 집하장에 반입되는 폐로프를 보관·관리한 뒤 제공한다. 동양제강은 인도받은 폐로프를 분류한 후 고순도 재생 폴리프로필렌 원료를 활용해 국제 재활용 표준(GRS) 인증을 획득한 재생로프를 가공·생산하게 된다.

강릉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순환경제 활성화와 깨끗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3대 메가프로젝트 발 맞춘다...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속도

교육부, 지방대학 학생 정원 유연화
인재양성 신속트랙제 도입 추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도 연계

교육부가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대학의 학생 정원 제도를 유연화한다.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해당 지역 대학이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필요한 인력을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정부가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분야가 포함된다.

지역협약정원제는 지방대학이 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계	반도체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23,064명	9,701명	13,363명	
			인공지능 4,000명	
첨단산업 부트캠프 (전문학사·학사)	7,400명	2,800명	미래차 400명 로봇 200명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학사)	1,100명	950명	로봇 150명	-
반도체공동연구소 연합 교육과정(학·석·박사)	690명	690명	-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학사)	8,734명	차세대반도체 220명 반도체소부장 1,770명 첨단소재 1,200명	인공지능 350명 미래차 872명 지능형로봇 812명	빅데이터 1,070명 데이터보안 1,240명 차세대통신 1,200명
BK21 (석·박사)	5,140명	지능형반도체 1,005명 첨단소재 1,066명	인공지능 1,345명 / AI+X 388명 지능형로봇 155명	빅데이터 1,181명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에 반도체·AI·데이터센터 관련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 대학이 산업계 수요에 맞춰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는 전과와 정원 외 편입학을 활용해 지방대학이 2년 안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다. 신입생 정원 조정만으로는 산업계 인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대학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7년간 AI, 반도체, 소프트웨어·통신

분야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첨단분야 정원 약 7100명을 늘리는 데 지원해 왔다. 이는 순증과 편입학 여섯, 결손 인원 활용 등을 포함한 규모다.

관련 분야 졸업생도 매년 9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2월 졸업생 기준 기계·금속, 소재·재료, 전기·전자, 컴퓨터·통신, 산업공학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계열 졸업생은 9만3646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 졸업생이 5만75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2만2158명, 석사 1만797명, 박사 3114명이었다.

계약학과를 통한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도 이투지고 있다. 기업 채용을 전제로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재직자 직무 역량을 높이는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통해서도 매년 약 2만4000명의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계약학과 재학생은 반도체 분야 3650명, AI 분야 2158명이다.

교육부는 약 1조원 규모의 첨단분야 인

재양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분야에서는 매년 2만3000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 중이다. 주요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반도체 공동연구소 연합교육과정,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등이다.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도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한다. 지방정부와 대학이 권역별 산업 수요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 투자 기업에 필요한 현장·실무형 인력을 공급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대학이 기업 투자와 연계해 첨단분야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정원 제도를 유연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모아주택 층수 높이고 용적률 확대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용적률 최대 500%, 인센티브 확대
제2종 7층 이하 지역 층수규제 완화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손본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에 적용되던 평균 13층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는 취지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지적돼 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 세부 기준 마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층수 규제 개선,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표준처리절차 마련 등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생활권 단위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DB

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통합해 주택을 공급하고,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방식이다.

우선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상향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된다. 매입입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적상향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지하철·국철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있는 경우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층수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던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종 7층 이하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 중·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그동안 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만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부족했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김원기 의정부시장, LH와 상생협력 시동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방문
주요 공공주택지구 사업 현황 논의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8일 취임 후 첫 유관기관 방문지로 용현산단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찾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관내 주요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LH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시장은 김성연 LH 경기지역본부장 등 임직원들과 만나 녹양우정지구, 의정부부림조티온, 용현지구 등 주요 공공주택지구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기관은 시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업 성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김 시장은 의정부에 거주 중인 LH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주 여건과



김원기 의정부시장(가운데)이 LH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소통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정부시

지역생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LH 임직원들이 의정부에 빠르게 정착해 지역 상생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4년 의정부로 이전한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하며 용현산단 일대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의정부(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경기도 일자리재단,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

15일 이천시 '5070 일자리박람회'
지역 우수기업 30개사 현장면접

경기도와 이천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5일 이전 서희청소년센터에서 '2026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중심 채용행사로 운영되며, 우수기업과 50~70세 구직자를 연결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3년째를 맞는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는 단순한 채용행사를 넘어 중장

년층의 지속 가능한 취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구직자에게는 새로운 경력 설계 기회를, 기업에는 검증된 실무형 인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람회에는 (주)명진로직스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등 지역 우수기업 30개사가 참여해 1대 1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이력서 접수 대행 서비스도 운영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일자리 유관기관 10곳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중장년 일자리 정책과 취업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행사장에서는 AI 기반 이력서 작성 지원,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및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채용 상담부터 현장 면접,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취업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자의 취업 준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참여기업의 채용공고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일지라는 단순한 고용을 넘어 삶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중장년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검증된 경력 인재를 연결하는 상생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는 15~16일 '인천국제해양포럼'

인천시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해양 지식 비즈니스 플랫폼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이 오는 15일~16일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AI 시대, 해양의 미래'를 주제로 삼았다. 인공지능 기술이 해양산업 전반에 가져올 AI 기반 혁신 방향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성공관대 최재봉 교수와 현대차·기아 주시현 사무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5개 정규 세션과 1개 특별 세션으로 이어진다.

특히 행사 둘째 날인 16일은 '인천 특화데이'로 지정해 운영한다. 'AI 시대 해양도시 인천'을 주제로 학계·산업계·정책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인천의 AI

기술이 해양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인천이 미래 글로벌 해양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AI 기술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피지컬 AI 전시·체험존'을 대폭 강화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사족보행 로봇과 인간의 보행을 완벽히 재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마트함만 내에서 물류 자동화를 수행하는 고난도 작업을 생생하게 시연한다.

아울러 정밀한 로봇 팔 제어로 정량의 디저트를 제조하는 아이스크림 로봇과 참석자 네임택의 QR코드를 연계한 로봇 커피 서비스 등 참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미래 기술들이 행사장 곳곳에 배치된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삼계탕 2만원 시대... 복날 외식대신 '실속 홍보양' 뜬다

식품·유통업계, 보양간편식 경쟁 대상·동원F&B, 이색 탕류 출시
아워홈·컬리, 초복 할인전 돌입
GS25, 1만원 미만 보양식 공략
CU, 삼계버거·장어정식 선보



GS25가 변화된 소비 추세에 삼계탕 중심이던 보양식 라인업을 장어덮밥, 전기구이한마리통닭 등 비상계탕 메뉴로 다각화했다. /GS25

장기화된 외식 물가 상승으로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2만원 안팎까지 치솟자 부담스러운 외식 대신 합리적인 가격에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실속형 홍보양'이 뜨고 있다.

식품업계는 물론 대형 유통 플랫폼과 편의점까지 가세해 전통적인 삼계탕을 넘어 장어, 흑염소, 추어탕 등 차별화된 원물을 활용한 보양 간편식(HMR)을 잇달아 선보이며 본격적인 복날 수요 공략에 나섰다.

국내 간편식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는 보양식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 6525억 원에서 2024년 6조 3425억 원으로 4년 만에 73.6% 급증했으며, 올해는 7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제품군도 한층 다채로워졌다.

대상 청정원 호밍스는 국내산 마꾸라지를 통째로 삶아 전통 방식으로 구현한 '남도식 추어탕'을 선보였으며, 동원 F&B는 자연방목 흑염소를 가미해 방식으로 우려

낸 '양반 보양 흑염소탕'과 소힘줄을 담은 '양반 우족 도가니탕'을 대용량 파우치로 출시했다.

보양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어를 활용한 곳도 있다. 이지큐는 일본 후쿠오카의 100년 전통 장어 전문점 '이나카인'과

기술 협업을 통해 상온 보관이 가능한 캔 제품 '이나카인 블랙 캔 히츠마부시'를 판매한다.

주요 유통업계는 초복을 앞두고 검증된 맛집 간편식과 전통 보양식을 앞세워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아워홈은 자사 온라인몰에서 '초복맞이 몸보신 대전'을 열고 대표 삼계탕 제품군을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최근 인기를 끈 'KBS 펀스토랑' 협업 제품인 '송기인의 울금 반계곰탕', '오상진의 영양가득 삼계술밥' 등 별미 보양식도 함께 구성했다. 아워홈의 대표 상품인 '고려 삼계탕'의 6월 판매량은 이미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컬리 역시 '복날 보양식의 모든 것' 기획전을 통해 500여 품목을 최대 40% 할인한다. 직접 요리하는 소비자를 위한 무항생제 생닭·오리부터 조식호텔 '삼계탕', 워커히 '명월관 갈비탕' 등 줄 서서 먹는 유명 맛집의 레디미일(Ready-Meal)까지 셋발배송으로 선보인다.

편의점 업계는 '1만 원 미만' 가성비와 상상치 못한 '이색 메뉴'로 승부한다.

GS25는 이른 무더위에 맞춰 보양식 출시 시점을 예년보다 3주가량 앞당겼다. 지난해 복날 시즌 삼계탕을 제외한 보양식 메뉴(장어, 치킨 등) 매출 비중이 61.2%에 달했던 트렌드를 반영해 올해는 '한마리 민물장어덮밥'과 '전기구이한마리통닭'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모두 1만 원 미만으로 가격을 책정해 부담을 낮췄다.

CU는 여름철(6~8월) 보양식 매출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자, 보양 식재료를 색다른 형태로 재해석한 간편식 6종을 순차 출시한다.

한방 풍미의 닭가슴살 패티를 넣은 '보양 삼계 버거', 국내산 인삼 추출물로 맛을 낸 '보양 삼계 삼각김밥'을 비롯해 원가 절감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을 20% 낮춘 '보양 장어 한마리 정식'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날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외식 물가가 치솟으면서 기존 삼계탕 중심의 소비 패턴이 다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킴온블프' 모바일 흥행몰이

CJ온스타일, 앱 설치 124% 증가
다이나믹 듀오 라이브 흥행 효과
타임딜·페이백딜 물량 조기 소진



CJ온스타일 '킴온블프'에서 다이나믹 듀오가 모바일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며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CJ온스타일

CJ온스타일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여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킴온블프'를 중간 집계한 결과, 모바일 앱 설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4%, 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 46%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기간 모바일 신규 구매 고객도 약 30% 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힙합 그룹 다이나믹 듀오의 모바일 라이브 공연과 굿즈 콘텐츠 선보이고, 할인 행사와 타임딜, 페이백딜 등을 함께 운영했다.

행사 첫날인 3일 모바일 앱에서 진행된 다이나믹 듀오 라이브 공연은 시작 5분 만에 페이지뷰(PV) 10만 건을 기록했다. 실시간 채팅 참여도는 전주 같은 시간대 방송 대비 약 7배 증가했다.

타임딜 행사 '다이나믹딜'에서는 패션·뷰티·리빙 등 주요 카테고리 상품을 하루 5차례 순차 공개했다. 복유립 거저귀 브랜드 리베로는 타임딜을 통해 1000세트 이

상 판매됐으며,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도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로보락, 드래곤디퓨전, 쿠크, 다이스 등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한 페이백딜은 행사 시작과 동시에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한편 CJ온스타일의 여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킴온블프'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김서현 기자 seoh@

KT&G, 수출입 안전관리 'AA등급' 획득

AEO 인증서 한 단계 상향 평가

KT&G는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증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관세청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하는 국제 표준 인증 제도다.

KT&G는 2023년 처음으로 AEO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A등급 상

정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AA등급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관세조사 간소화, 수출입 물품 신속 통관 등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A등급보다 검사 대상 제외 비율이 확대되고 갱신심사 가점도 부여된다.

KT&G 관계자는 "이번 AEO 인증 A등급 획득은 법규 준수와 안전한 수출입 관리체계를 강화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AEO 운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지마켓, 상반기 거래액 4년 만에 반등

고객·셀러 지표 동반 개선
역직구 거래액 2배 이상 성장

지마켓이 그동안 단행한 전략적 투자와 거래액 등 주요 경영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며 성과를 내고 있다.

지마켓은 지난해 '5년 내 거래액(GMV) 2배 성장'을 목표로 고객과 셀러 대상 대규모 투자 계획과 비전을 발표했다. 투자 시행 첫해인 올해 상반기에는 거래액 성장세 회복과 함께 고객 구매력, 셀러 경쟁력, 글로벌 사업이 동반 성장하며 투자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9일 회사측에 따르면 거래액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전년대비 증가세를 유지하며 상반기 기준 4년 만에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하는 반등에 성공했다. 거래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플랫폼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특히 지마켓 사이트의 상반기 거래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주요 고객 지표도 개선됐다. 고객 1인당 월평균 구매객단가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가격비교 사이트 등 외부 채널이 아닌 직접 방문 거래액도 5% 증가했고, 구매전환율 역시 14% 상승했다.

셀러 생태계도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 1일 기준 지마켓 셀러는 66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월 매출 5천만원 이상의 수익형 셀러도 6% 증가했다. 대형 프로모션 쿠폰 비용 전액 지원, 셀러 할인 쿠폰 수수료 폐지 등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셀러 투자 정책이 셀러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마켓의 차별화 전략으로 꼽히는 글로벌 역직구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상반기 거래액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지그재그, 6월 SPA 거래액 63% 급증

미소 거래액 113% 늘어 최대치

지그재그는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6월 SPA 브랜드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63% 급증했다고 9일 밝혔다. 여름 시즌은 높은 기온과 습도 등으로 의류 교체 주기가 짧아져 합리적인 가격에 퀄리티와 트렌디한 디자인을 갖춘 상품을 찾는 SPA 브랜드가 주목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브랜드별 성장세도 뚜렷했다. 여성 SPA 브랜드 '미소'의 6월 한 달 거래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113%) 폭증하며 지그재그 입점 이후 월 최대 거래액을 경신했다. '에잇세컨즈(64%)'와 '스파오(47%)' 등 주요 SPA 브랜드도 두 자릿수 이상 거래액이 증가했다.

특히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상

반기 최대 프로모션 '2026 여름 직작팍'이 기록적 역할을 했다. 미소는 행사 기간 중 거래액이 지난해 동일 프로모션 기간 대비 170% 늘었으며, 에잇세컨즈와 스파오 거래액도 각각 138%, 86% 증가했다. 해당 프로모션에서 미소와 스파오는 참여 브랜드 패션 중 나란히 거래액 1,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그재그는 빠른 배송 서비스인 '직진배송'도 SPA 성장 배경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나 외출을 앞두고 급하게 옷이 필요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킨 결과다. 이에 따라 SPA 카테고리 내 직진배송 비중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미소의 직진배송 거래액은 전년 대비 53%, 로엠은 23% 늘었다.

/김서현 기자

백다방

20주년 신메뉴 선보여

대표 메뉴 6종으로 재해석

런칭 20주년을 맞은 백다방이 대표 메뉴를 재해석한 신메뉴를 선보였다. 시그니처 원두와 원조커피 등을 활용해 브랜드 대표 메뉴를 다양한 음료로 확장했다. 더본코리아의 커피 전문 브랜드 백다방은 20주년을 맞아 신메뉴 6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엄보람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이 제품 개발에 참여한 챔피언스 유자아메리카노와 챔피언스 유자샷 아메리카노는 시그니처 블렌드 원두와 유자 베이스를 조합했다. '원조커피 크림 라떼'와 '원조커피 크림 미숫가루'는 원조커피를 활용한 크림을 올린 메뉴다. /김수정 수습기자



단백하니.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단백하니' 출시 1년 성과

누적 판매량 130만개 넘어

고단백 식품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단백질 간편식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CJ제일제당의 단백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단백하니'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만 개를 돌파하며 웰니스 트렌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6월 CJ올리브영과 공동 기획해 선보인 '단백하니'가 프로틴바를 시작으로 단백질셰이크 3종(시그니처·초코·딸치), 프로틴바 2종(피넛버터·딸치초코)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2030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HA 필러’로 글로벌 시장 재공략 메디톡스 “수익성·점유율 개선”

도미니카공화국·중서 품목허가
매출 158억, 전년비 28% 줄어
저가공세·국내외 경쟁 심화 영향
소송 리스크 등 이익 정상화 과제

메디톡스가 중국, 중남미 등 해외 미용 의료 시장에서 히알루론산(HA) 필러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사업 확장 기조를 중심으로 필러 사업 역성장 방어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선 모습이다.

9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근 히알루론산(HA) 필러 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지난달 도미니카공화국 의약품식품건강제품총국으로부터 자체 개발한 HA 필러 ‘아티에르’ 3종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번 신규 허가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또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고급 HA 필러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 품목허가를 받았다. 중국을 아시아 지역 핵심 거점으로, 향후 중국 최대 제약기업 시노팜과 협업해 현지 마케팅과 유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이처럼 거대 마용의료 시장을 정조준해 필러 브랜드 입지를 다져, 필러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해외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지만, 그동안 메디톡스 필러 사업은 실적



히알루론산 필러 ‘아티에르’ 3종.

둔화세를 겪어왔다. 올해 1분기 메디톡스 필러 사업 매출은 158억원으로 전년 동기 219억원 대비 28%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191억원과 비교해도 17% 줄었다. 메디톡스는 전략적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해외 매출의 일시적 하락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필러 수출 타격이 더 컸다. 올해 1분기 필러 수출액은 115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175억원 대비 34%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내수 매출 역시 44억원에서 43억원으로 소폭 내려가 안팎으로 필러 사업의 입지가 좁아졌다.

메디톡스 측은 “후발 주자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국내외 경쟁이 심화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필러 사업이 주축하는 사이 메디톡스의 실적 저울추는 보툴리눔 독신 사업으로 기울었다. 올해 1분기 메디톡스 보툴리눔 독신 매출은 373억원으로 전년 동기 330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특히 독신



‘뉴라미스 딥 리도카인’ /메디톡스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 158억원에서 올해 1분기 214억 원으로 35% 커지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체 매출 607억원에서 보툴리눔 독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61.4% 수준이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과제에도 당면해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6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소송 리스크 완화 등으로 영업이익 74억원과 당기순이익 79억원은 전년 대비 각각 35%, 136% 증가했다. 법무비를 제외한 조정 영업이익률이 38%에 달하는 데 비해 최종 영업이익률은 12% 수준에 묶여 있다.

메디톡스 측은 “소송 리스크가 고정부로 작용해 발목을 잡았으나 소송 리스크 해소 시 즉각적인 이익 정상화가 기대된다”며 “글로벌 사업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등에 주력해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이문셀엘씨주’ 평가기준 마련 국제표준 분류에 공식 등재

지씨셀, WHO 의약품 분류체계서
‘항종양 세포·유전자치료’ 부문 등재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지씨셀 면역세포치료제 ‘이문셀엘씨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문셀엘씨주의 표준화된 약물가치가 확보됐다.

지씨셀은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분류 체계에서 ‘항종양 세포 및 유전자치료(L01XL)’ 부문에 이문셀엘씨주가 공식 등재됐다고 9일 밝혔다. 최종 등재 시점은 오는 2027년 1월이다.

기존에는 세포치료제에 대한 분류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문셀엘씨주는 ‘기타 면역자극제(L03AX)’로 분류돼 왔다. 이후 세계보건기구가 ‘항종양 세포 및 유전자치료(L01XL)’를 신설·정비하면서 심사를 거쳐 해당 분류로 편입이 확정됐다.

이번 등재를 통해 이문셀엘씨주는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의 국제 표준 분류 기준에 포함되며 해외 기술수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도 제품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문셀엘씨주’ /지씨셀

아울러 지씨셀은 이문셀엘씨주 해외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해 5월 인도네시아에서 이문셀엘씨주 첫 환자투여를 완료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성공사례를 발판으로 다수 국가와 추가 기술수출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씨셀 관계자는 “이번 세계보건기구 의약품분류체계 등재는 이문셀엘씨주의 임상시험 및 실처방 데이터(RWD) 등이 글로벌 표준 분류에 부합함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분류 체계가 항암제로 명확해진 만큼 2027년 최종 적용 시점에 맞춰 해외 진출과 기술수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

제조공장 고효율·저탄소 설비 전환
에너지 비용 연간 2억 절감 기대

광동제약이 친환경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관련 설비 도입 등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을 다진다. 광동제약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정부 국책 사업으로, 제조공장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저탄소 설비 전환을 지원한다.

광동제약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생산 시설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투자 내용은 ▲에너지 절감형 보일러 ▲폐열 재

활용 시스템 ▲전력 절감형 공조기 ▲고효율 송풍 설비 ▲고효율 폐기물 탈수 설비 등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감독 체제를 운영하며 에너지 사용량과 오염물질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광동제약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약 600톤, 폐기물 발생량 약 16톤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도 연간 약 2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속가능경영을 확대하고 제조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설비 투자와 관리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온실가스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SK바사, ‘백신 생산’ 글로벌 점검 완료

WHO 정기 점검 통과... 역량 입증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정기 점검을 통과하며 글로벌 수준의 생산 역량을 입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전적격성평가(PQ)를 인증한 자사 독감백신 스키아셀플루 및 스키아셀플루 4가, 수두백신 스키아바리셀라, 장티푸스 백신 스키아티아포이드에 대해 3년마다 실시되는 WHO GMP 정기 점검을 완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실사 없이 서면심사로 진행되면서 해당 백신을 제조하는 공장 ‘인동 엘 하우스’ 경쟁력까지 인정받았다. 일반적으로 WHO GMP 점검은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그러나 엘 하우스(L HOUSE)는 제출 자료 검토만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서면심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GMP 운영 전략뿐 아니라 국내 의약품 규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뒷받침됐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

구 우수규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식약처 자료가 활용되면서 일부 절차에서 현장실사가 서면심사로 대체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장실사 대비 준비 기간과 투입 인원을 효율화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MP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주요 규제 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체계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상윤 공장장은 “이번 WHO GMP 서면심사 완료는 인동 L HOUSE의 GMP 운영 역량과 품질 시스템이 거둔 국제적 성과”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hy “HY7715, 스트레스에 따른 뇌신경 노화 완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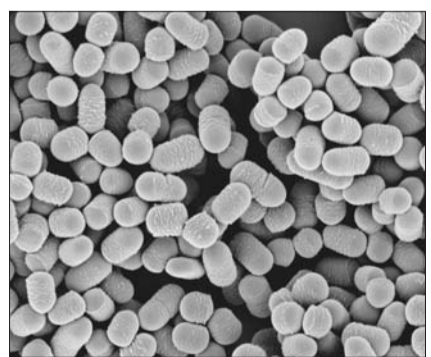
SCI급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hy가 자체 개발한 프로바이오틱스 ‘HY7715’의 뇌신경 노화 억제 효능을 확인했다.

hy는 ‘HY7715의 스트레스에 따른 뇌신경 노화 지표 변화’를 다룬 연구 논문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스트레스 환경에서 HY7715가 뇌신경의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hy는 세포·동물 실험을 통해 HY7715가 스트레스에 따른 뇌신경 노화 관련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세포 실험에서는 HY7715 처리군의 산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25,000배 확대 관찰한 HY7715. /hy

화스트레스와 세포노화가 완화됐다. 산화스트레스로 증가한 활성산소와 DNA 손상, 세포노화 관련 유전자 발현은 감소했고 세포 보호와 관련된 지표는 회복됐다. 동물 실험에서도 구수 스트레스를 받

은 실험 동물에게 HY7715를 투여했을 때 세포노화와 염증 관련 지표는 줄고 항산화 지표는 개선됐다.

스트레스받은 동물 모델군과 정상군이 각각 다른 장내미생물을 갖는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도 포착했다. HY7715 투여군에서는 락토바실러스의 비율이 증가했고 스트레스 반응에 따라 늘어난 일부 미생물군이 감소하기도 했다. 장내미생물 변화와 뇌 조직의 항산화, 염증, 세포노화 지표 간 상관관계도 확인했다.

HY7715는 hy가 자체 개발한 식물 유래 프로바이오틱스다. hy는 해당 균주의 비타민 B2 생산 능력을 확인하고 근감소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기능성 검증을 이어왔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라엘 ‘에어리 쿨’, 전월비 300% 성장세

여름철 고기능성 생리대 시장 공략

우먼 웰니스 케어 브랜드 라엘이 여름철 생리대 시장에서 고기능성 제품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인다.

라엘은 올해 5월 국내 판매량에서 자사 ‘에어리 쿨’ 제품군이 전월 대비 300%의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에어리 쿨은 높은 기온과 습도에 대응 가능한 통기성과 쾌적한 사용감을 갖춘 신제품이다. 지난 4월 말 출시 직후에는 CJ올리브영에서 전체 상품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라엘에 따르면, 팬티형 제품인 ‘에어리 쿨 입는 오버나이트(사진)’의 일부 사이즈는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품절되는 등 제품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라엘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적 수요에 맞춰 추가 공급을 준비한다는 방



침이다. 현재 품절된 제품은 오는 7월 중순 이후 주요 판매처를 시작으로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라엘 관계자는 “웰니스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름 생리대 역시 단순히 시원한 느낌보다 쾌적한 착용감과 피부 친화성을 함께 살피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에어리 쿨 생리대는 피부가 평소보다 예민해지기 쉬운 여름철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기성과 착용감, 피부부담까지 고려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OZZARELLA
BURGER
CHEF EDITION

바질에 토마토를

REALLY?

버거를 더 맛있게

NAPOLINI!



By chef 나폴리 맛피아

나폴리 모zzarella버거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SKT, AI·ICT 분야 ‘사회적 가치 측정모델’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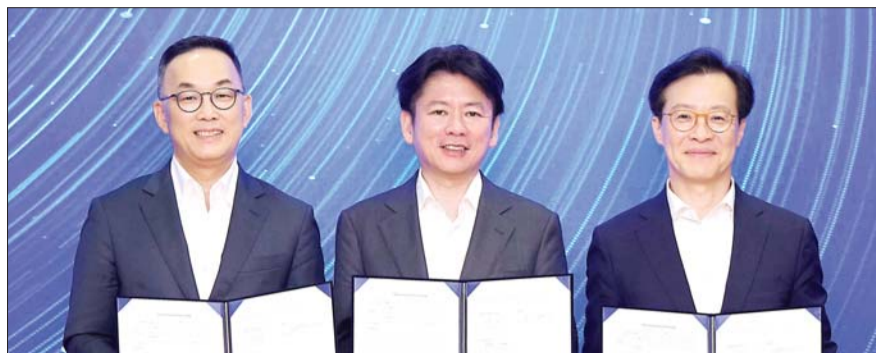
日 통신사 소프트뱅크 업무협약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가치 창출”

SK텔레콤이 일본 통신사 소프트뱅크와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을 표준화 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

SK텔레콤은 소프트뱅크·사회적가치 연구원과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을지로 SKT 타워에서 진행된 협약에 겐다 야스유키 소프트뱅크 코퍼레이트 총괄,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 엄종환 SKT 지속가능경영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SK그룹이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협력은 지난 2024년 사회적 가치 측정 워크숍을 열고 사례를 발표하며 처음 시작됐다. 특히 SK텔레콤이 측정할 지표와



9일 서울 을지로 SKT 타워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엄종환 SKT 지속가능경영실장, 겐다 야스유키 소프트뱅크 코퍼레이트 총괄,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소프트뱅크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교하게 측정할 결과를 공시하고 비교·분석하기도 했다.

3사는 그동안 축적한 사회적 가치 측정 역량을 바탕으로 AI·ICT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글로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정 표준 방

산업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측정 체계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회사는 2018년부터 기업 활동 전반에서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케어, 재난 대응, 범죄 피해 예방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AI·ICT 기반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 발굴하고, 2021년부터는 성과 공개의 수준을 높여 세부 지표들의 측정식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엄종환 SKT 지속가능경영실장은 “AI가 만드는 사회적 효용과 해결 과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설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AI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가치 측정 표준 방법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배달플랫폼 3사 ‘동반성장 시범평가’ 참여

동반성장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배민),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신한은행(뽕겨요)과 9일 ‘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 시범평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배달의민족 김중현 전무, 쿠팡이츠 정우운 대외정책실장, 동반성장위원회 이달곤 위원장, 뽕겨요 전성호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소진공, 전통시장 화재예방 팔 걷어

소진공은 지난 8일 소방청과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 시스템’ 구축·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기보,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8일 경기 부천시 웹툰융합센터에서 동서대학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제작·사업화 전 주기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기보 천창호 이사(왼쪽 첫번째) 등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동아쓰시오그룹,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동아쓰시오그룹은 지난 8일 경북 상주 낙서초등학교에서 신입사원들이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입사원 70여 명이 참가해 낙서초등학교의 복도와 계단을 재단장하며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동심의 공간을 꾸몄다. /동아쓰시오그룹

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초광역산업협력과장 이주호

부음 ▲이연숙(전 정부제2장관·전 국회의원·전 여성단체협의회장)씨 별세, 이승연(이승연 몬테소리 영어교육연구소장)·지연(한양여자대학교 교수)씨 모친상, 김규동씨, 정종원씨 빙모상 = 9일,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1일. 02-2290-9442

▲최정자씨 별세, 안상준(프로야구 울산 웨일즈 코치)씨 모친상 = 9일, 부산시민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1일. 051-636-4444



8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항공엔진 상생협력 MOU 협약식’에 참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엔진 제조 협력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 항공엔진 국산화 박차

협력사 기술개발 등 지원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항공엔진 개발을 앞두고 항공엔진 제조 협력사와의 협력 범위를 넓힌다. 소재·부품부터 조립·시험까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항공엔진 특성에 맞춰 기술개발과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남 경남 창원 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항공엔진 제조 협력업체 및 유관 기관과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항공엔진 제조 분야 핵심 협력사 49곳과 유관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에는 협력사 맞춤형 기술개발과 직무교육, 연구개발(R&D) 비용 및 인프라 지원, 거래환경 개선 등이 담겼

다. 항공엔진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사 역할을 높이고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월 ‘상생협력 선포식’을 열고 항공엔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항공엔진 소재·부품 분야 MOU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과 협력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만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첨단항공엔진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산 항공엔진 개발 사업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김준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군수사업 총괄은 “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생협력을 통해 국산 항공엔진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송미령 장관, 몽골 ‘K-푸드 체험행사’ 참여

현지마케팅 통해 수출 확대 나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몽골을 찾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마케팅 행보에 직접 나섰다.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등은 지난 8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K-Fresh(신선식품) 체험행사 및 K-편의점 간편식 시식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송 장관은 8일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를 앞두고 현지 소비자 30여 명을 초청했다. 행사에서 한우와 한돈, 닭고기, 쌀, 채소, 파프리카, 버섯 등을 싹장과 함께 선보이고 후식으로 수박 화채를 제공했다.

송 장관은 또 한국산 신선 농축산물 전



문 판매장인 ‘K-Fresh Zone’을 방문해 과일과 채소, 육류 등의 판매 현황도 점검했다. 해당 매장은 한국에서 주 1회 항공편으로 신선식품을 직송받아 판매하고 있다. 높은 소비자 호응에 힘입어 내년 중 2호점 개점을 추진 중이다.

그는 몽골시장 관련해 “K-Fresh부터 K-간편식까지 다양한 K-푸드 수출이 가능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전략 품목 개발과 인증·통관, 물류, 유통망 개척,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해 K-푸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애 기자 kys@

포스코-KB국민은행, 공급망 금융 업무협약

철강공급망 내 고객사 유동성 지원

포스코가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철강공급망 내 고객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도입한다. 양사는 공급망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KB국민은행과 ‘공급망 금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와 고객사, KB국민은행이 연계된 금융 지원 구조가 마련된다. KB국민은행은 판매대금 회수를 전담하고, 고객사에는 기업 대출 지원

과 ESG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사는 연내 공식 오픈을 목표로 포스코의 고객 플랫폼 ‘마이 포스코(My POS CO)’에 KB국민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직접 연동하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고객사는 플랫폼 안에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양사는 가산금리를 최소화한 업계 최저 수준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해 철강 경기 불황 속 고객사의 실질적인 유동성 확보와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카카오, ‘단골가게’ 론칭… 강원지역 공모

지역 소상공인 브랜드 성장 지원

카카오는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 ‘프로젝트 단골’의 일환으로 ‘단골가게’를 새롭게 론칭하고 강원 지역 식음료(F&B) 업체를 대상으로 첫 공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단골가게’는 지역에서 사랑받는 가게

가 전국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강원도 내 F&B 업체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카카오비즈니스 홈페이지에서 받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18일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매달당 최대 1억원 규모의 혜택이 제공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오늘의 날씨

7월 10일 (금)
음력: 5월 26일

수도권 날씨
23~29℃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9 | 해질 / 19:55

연천 22/28
동두천 23/29
가평 22/28
파주 23/28
서울 23/29
양평 23/29
인천 24/29
수원 24/29
용인 24/29
평택 23/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숲의 청정한 공기, 자연을 닮은 환기



'숲속 집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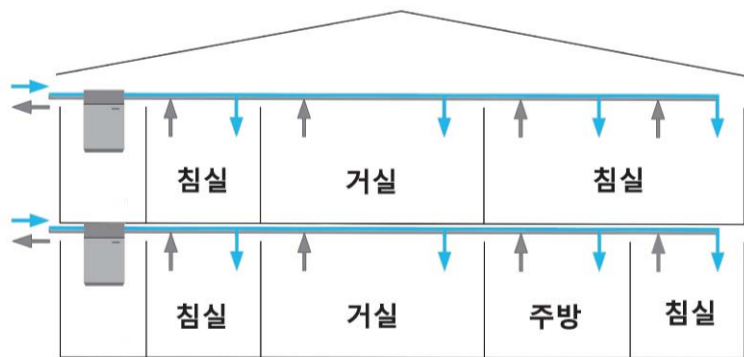
창문을 열지 않아도
미세먼지, 황사 걱정없이
숲속 공기가 집안에 들어온 듯,

환기, 이제는
더 쉽고 편안하게



좌우 도어 방식으로 간편한 필터 교체순서

[신개념] 키친 수납함 스타일로 제작된 도어형 열회수 환기청정기



→ 깨끗한 실외공기 + 산소 공급
← 오염된 실내공기 + 이산화탄소 배출

아파트, 주택, 사무실, 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환기 시스템

[특장점]

●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공구 없이 도어를 간편하게 열어 필터 상태를
직접 자주 확인할 수 있음.

● 1분 셀프 필터 교체!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안전하게,
목 디스크 걱정 없는 편리한 교체 가능.

● 사계절 내내 에너지 절감!

냉방과 난방 효율을 높이는 최고급 전열교환소자가
내장되어 뛰어난 열교환 성능을 자랑.

● 공기 정화는 기본, 탈취까지 완벽하게!

H13 등급의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와 탈취 기능까지
갖춘 대용량 복합 항바이러스 헤파 필터로
미세먼지, 황사 걱정 없이 쾌적한 환기를 제공.

● A/S 없이도 OK!

필터 교체부터 유지관리까지 스스로 해결!

www.pursol.co.kr

푸르솔 010. 8899. 8651

반도체 메가투자, '그들만의 잔치' 대선 안돼



기고
최승재
중소기업융부즈만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찾아온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화두다.

용인과 평택 등을 중심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본이 투입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과격적인 세제 혜택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을 약속하고 관련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막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하지만 이 화려한 거시 경제의 축포 아래 산업의 밑바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인들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벤처·중소기업인들은 씩씩한 표정으로 묻는다. "과연 저 거대한 축제에 우리를 위한 자리도 있느냐"고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글로벌 경쟁을 뚫고 이뤄낸 기업의 혁신과 그에 따른 보상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의 세금과 국가적 인프라가 집중 투입된 메가 투자의 과실이 소수 대기업만의 전유물로 끝나

거나 자칫 거대 자본과 정치권만의 '윈윈(Win-Win)'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대기업이 수출을 이끌고 덩치를 키우면 그 아래 하청업체와 지역 골목상권까지 온기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가 어느 정도 작동했다. 하지만 고도로 자동화되고 복잡해진 첨단 산업 시대에 낙수효과는 더 이상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이 아니다.

대기업이 수조 원의 이익을 내도 1·2차 하청을 맡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고질적인 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 거래 관행에 시달리며 생존을 걱정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대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반으로 건강하게 스며들게 하려면 그 물길을 이어줄 탄탄한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파이프라인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다. 수백조 원 규모의 지역 메가 투자가 진정한 국가 경제 도약과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굴지의 대기업 몇 곳의 결단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혁신적인 반도체 설계(팹리스)를 맡고, 나노 단위의 정밀한 패키징을 담당하며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적시에 공급하는 튼튼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거대한 반도체 특수 현장에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규제의 곱셈 법칙'이 어김없이 작용한다.

정부가 서둘러 부지를 지정하고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넓은 고속도로를 뚫어 놓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정작 그 도로를 함께 달려야 할 협력 중소기업들의 트레일러가 꽂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현실의 수많은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지지체의 경직된 인허가 절차, 비현실적인 산업단지 입주 제한, 현장과 괴리된 낮은 화학물질 취급 규제 및 환경·안전 지침 등에 발이 묶여 제때 공장을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앞길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시원하게 열어주면서 정작 그들의 손발이 뒹굴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 해결이 '0'으로 굳게 닫혀 있다면 공급망 전체에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곱셈의 법칙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라는 최종 성과 역시 '0'에 수렴하고 만다.

진정한 초격차 경쟁력은 나 홀로 질주하는 독주가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를 이끌고 함께 비행하는 편대비행에서 나온다. 온 국민이 지지하는 성공적인 메가 투자가 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성과를 나누는 공정한 거래 관행의 정착과 함께 협력 기업을 묶어매는 '현장 밀착형' 그림자 규제 혁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융부즈만

흑자는 쌓이는데 원화는 왜 불안한가



기지수첩
김주형
(금융부)

달리는 쌀이지만 원화는 웃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000만달러 흑자였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다. 1~5월 누적 경상수지도 1412억8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를 반년도 안 돼 넘어섰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의 대외 장부는 더없이 탄탄해 보인다.

하지만 체감은 다르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1500원대를 낮춘 숫자가 아니라 일상적인 불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있다. 나라가 달러를 이렇게 많이 벌었다는데 왜 원화는 좀처럼 강해지지 않는지 의문이 생긴다. 좋은 통계와 불안한 체감이 동시에 놓인 셈이다.

과거의 문법은 비교적 단순했다. 수출이 늘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내면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가 많아지고, 이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 문제는 흑자가 원화 안정으로 넘어가는 길이 좁아졌다는 데 있다.

실제로 5월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자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다. 국내 증시가 오르자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 매도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커졌다. 수출이 벌어들인 달러가 있어도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달러가 크면 원화는 쉽게 안정을 찾기 어렵다.

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도 변수다. 5월 말 기업 달러예금 잔액은 829억9000만달러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 입장에서 고환율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달러를 곧바로 원화로 바꾸지 않는 것이 합리

적일 수 있다. 다만 이런 선택이 쌓이면 경상 흑자가 곧바로 외환시장 내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된다.

경상흑자는 국가의 장부를 개선하지만 고환율은 가계의 장비구니와 기업의 원가표를 먼저 흔든다. 수출 대기업에는 환율이 실적 방어막이 될 수 있지만 수입 원자재를 쓰는 기업과 소비자에게는 비용 부담이다. 해외여행, 유학비, 수입물가를 통해 고환율은 일상으로 들어온다. 좋은 숫자만으로 국민의 불안을 달래기 어려운 이유다.

경상수지가 크게 흑자를 냈는데도 원화가 불안하다면 필요한 것은 흑자 규모의 강조가 아니라 그 숫자가 왜 체감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한국 경제는 달러를 못 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번 달러가 원화의 신뢰로 곧장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gh47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0일 (음 5월 2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겸손하게 처신하세요. **60년생** 모든것에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72년생** 옛날의 악연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84년생** 길에서 돈을 주웠으나 임자가 있는 돈일 것입니다.



49년생 욕심이 자녀를 잘못 만들 수 있습니다. **61년생**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반듯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73년생**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85년생** 대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0년생 추후에 재산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62년생** 투자처를 찾고 있다면 잠시 뒤로 미루세요. **74년생** 주위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안보입니다. **86년생** 이성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51년생 주위에 괜히 스트레스를 부리지마세요. **63년생** 다이어트가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75년생** 감당하기 벅찬 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87년생** 목돈 들어갈 일이 발생합니다.



52년생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64년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76년생** 집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88년생** 우유부단하면 기회를 잃게 되니 결단력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53년생 지나간 미련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5년생** 소중한 물건을 분실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재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89년생** 차분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54년생 이기적인 판단은 매우 흉합니다. **66년생** 불필요한 과소비를 줄이세요. **78년생** 주변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90년생** 가정에 큰 경사가 생길 좋은 운입니다.



55년생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으세요. **67년생** 욕심을 버리면 위안을 삼을 일이 생깁니다. **79년생**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91년생** 새로운 기운이 집안에 들어옵니다.



56년생 충분히 승산이 있는 하루입니다. **68년생**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80년생** 현명함과 뛰어난 총명함이 보입니다. **92년생** 차분히 집중해야만 길을 찾게 됩니다.



57년생 지금 추진하는 일은 잘 됩니다. **69년생** 성공이 좋은 결실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81년생** 신분에 걸맞는 소망은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93년생** 통이 너무 큰 것이 다소 흠입니다.



58년생 부인은 현묘양처의 기질을 발휘할 때입니다. **70년생** 즐거우며 따르게 되는 운기입니다. **82년생** 이미 어려움을 건너 해결된 형국입니다. **94년생** 기분전환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59년생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71년생** 동료와의 기쁜 만남이 있습니다. **83년생** 재물운과 이성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95년생** 앞길에 어려움이 생겨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인연의 고리

살다 보면 우연을 많이 경험한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를 만나거나 기회를 얻게 되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는다. 불가적 믿음에서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한다. 모든 만물은 인연 법에 따라 생멸한다고 하는 것이니 우연이니 필연이니 하는 얘기들도 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우리의 안목이 짧으므로 우연처럼 보일 뿐이다. 보통 사람들은 인연 법을 얘기하려 치면 인간관계에만 국한하곤 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에 해당하는 논리이다. 어떤 장소, 즉 지형에도 내게 좋은 기운을 주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 그래도 세상살이에서 우선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 인간관계인 것이다. 인연 법은 선연과 악연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인연으로 나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조심할 것은 당연히 나쁜 악연(惡緣)이다. 나쁜 인연 즉 악연도 각각 강도가 다르다.

그저 안 보고 피하면 될 악연도 있지만 피할 수도 없는 악연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자면 부부인연으로 만났는데 악연인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악연이니 헤어지면 되잖아, 이혼하면 되잖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헤어지고 할 때 순수히 이별해주는 사람은 좋은 인연일 수도 있다. 악연인 사람은 순수히 헤어져 주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가 죽을까지 해치는 예도 있다.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인연들을 보시지 않는가? 그러나 사람을 만날 때도 쉽게 인연을 맺을 일이 아니지만, 악연일수록 처음 만날 때 확! 하고 끌리는 경우가 많다. 첫눈에 반해서 끝까지도 좋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이별 수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첫눈에 스피크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불가에서는 웃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부는 8000겁의 인연이고,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인연 값을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법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5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5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술병 전면에 경고문구... 전형적 탁상행정 vs 음주폐해 경감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35

“이거 대체 누구 머리서 나온 생각입니까?”

지난달 열린 ‘2026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에서 불만과 항의가 이어지며 큰 소리까지 오갔다. 사실 그럴 성격의 자리가 아니었다. 정책을 논하는 토론회도 아니었고, 이미 확정된 물론 시행이 코앞인 제도를 부처 담당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취지였다. 과음경고문구를 전면에 붙이라는게 문제인데 주류업계 관계자는 속이 터져도 관할 부처에 이렇게 대놓고 항의는 못할터. 다음 아닌 소비자들이 직접 설명회까지 찾아와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마승철 한국주류수입협회장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나라셀라도운스페이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거와 달리 이제 술은 대화를 나누고 기쁨을 공유하



주류 과음경고문구 부착 사례.

/AI 생성 이미지

는 자리의 동반자인 동시에 음식과 함께 우리 문화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며 “규정이나 세금 등 주류와 관련된 많은 정책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류수입협회는 현재 와인, 위스키, 맥주, 사케 등 55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가장 주시하고 있는 현안은 과음경고문구와 관련한 개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음주운전 금지문구·그림 추가, 경구 문구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시행

은 오는 11월 9일부터로 넉 달밖에 남지 않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전에 없던 음주운전 경고 문구를 새로 만들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논란은 핵심사안이 아니라 전면 표시 규정에서 불거졌다. 대부분 뒷면에 있어 모르는 이가 더 많지만 이전부터도 원칙은 전면표시였다. 담당부처에서 실태 조사를 했더니 전면 표시를 지키는 경우가 1%도 되지 않았고, 이번 기회에 아예 주상표가 있는 전면 하단으로 못을 박아

버린 거다. 속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잠잠하다가 시행 세부규정이 나오고 나서야 난리가 났다. 특히 맥주, 소주보다는 술 용기에도 정체성이나 예술적 의미를 부여하는 와인이나 위스키, 전통주 등에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와인이나 위스키의 경우 현지 제조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곳도 있다.

예고된 바에 따르면 위치는 전면 상표 하단에 글자·그림 크기와 문구 바탕색까지 흰색으로 정해져있다. 어떤 나라에도 없는 규정이다.

윤선용 주류수입협회 사무국장은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규정들은 다 있지만 전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지적했다.

또 식품표시합리화방안에 따르면 잦은 개정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라벨 규정을 바꿀 때는 짝수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지만 이도 지켜지지 않았다.

업계도 업계지만 소비자반발이 크다보니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위스키 동호회에서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면에 경고문구가

붙는다면 응답자의 80%가 국내가 아닌 해외 직구로 사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20% 중에서도 절반 가량인 10%는 국내에서 사더라도 바로 경고문구를 떼어버리겠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도 문제를 제기 중이다. 일단 물리적으로 유예기간 6개월은 너무 짧다. 수입 주류는 해상운송에만 3~4개월이 걸린다.

이와 함께 기존 재고를 1년 뒤인 2027년 5월 8일까지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게 수입사에서 나가는 물량뿐만 아니라 기존 유통되고 있는 제품까지 바뀌야 한다. 와인이라면 전국 샵을 살살이 뒤져 한 병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가져와 라벨갈이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마 회장은 “한국은 주류에 대해서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공정한 플레이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주류 규제 합리화는 주류 산업 뿐 아니라 자영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메가박스發 정산 대란... 영화계 ‘돈맥경화’

중앙그룹 법정관리 후폭풍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동시다발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중문화 산업 전반이 얼어붙고 있다. JTBC가 법원의 긴급 승인을 받아 미지급 출연료를 청산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메가박스의 정산 불이행으로 영화계는 벼랑 끝에 몰렸다. 대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제작사와 위탁극장, 스태프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연쇄 채무 불이행 사태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2일 JTBC가 만기가 도래한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갚지 못하면서 촉발됐다. 중앙그룹은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4개 법인의 기업회생절차를 전격 신청했다. 하루 뒤인 15일에는 JTBC마저 회생 대열에 합류했다.

현재 JTBC는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받아들이면서 회생 개시가 잠정 보류된 채 채권단과 자율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반면 메가박스중앙 등 나머지 4개 계열사는 이미 정식 회생 절차에 돌입해 방송 연기자들과 영화 관계자들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아는 형님, ‘냉장고를 부탁해’ 등의 출연료 지연을 지적하며 최우선 변제를 촉구하자 JTBC는 즉각 수습에 나섰다.

JTBC는 지난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 그간 묶여 있던 파견 수수료와 외주 용역비, 출연료 등을 지난주 전액 지급 완료했다”며 정산 지연

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문제는 JTBC와 달리 메가박스중앙의 법정관리 여파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가박스는 최근 배급사들에 “2026년 6월 14일 이전까지 쌓인 미지급 정산금은 모두 회생채권으로 묶여, 향후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의거해 추후 변제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영화티켓 매출 분배금(부금) 지급을 동결하겠다는 선언이다.

통상 극장 운영 후 45일 뒤에 이뤄지는 정산 구조상, 당장 7월 중순부터 5월 상영작들의 대금 결제가 막히게 된다.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외국계 직배사를 제외한 국내 배급사들의 묶인 채권만 약 150억 원에 달한다”며 “자금력이 없는 100여 개 중소 배급사들은 당장 사무실 월세와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메가박스 고유의 위탁상영관 구조가 폭탄을 키웠다. 메가박스는 멀티플렉스 3사 중 위탁점 비중이 가장 높는데, 본사 전산망을 공유하다 보니 통신사 할인이나 간편결제(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로 결제된 관객 대금을 본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위탁관 비상대책위원회가 집계한 미수금만 이미 70억~80억 원 선이다. 특히 법원이 ‘직영점’의 예매대금과 신작 ‘토이스토리 5’의 부금 지급만 우선 허가하면서 차별 대우를 받은 위탁관들의 분노와 피해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베테랑 기사가 기록한 BTS와 아미



소우주: 연결과 위로, 아미 기사의 BTS 관찰기

한승주 지음/304쪽/메디치미디어

평생 의심과 냉소를 직업적 숙명으로 삼아온 33년 차 베테랑 언론인이 K팝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국민일보 한승주 논설위원이 펴낸 신간 ‘소우주: 연결과 위로, 아미 기사의 BTS 관찰기’는 2018년 뒤늦게 BTS에 입덕한 중년 기사의 뜨거운 고백록이자, 전 지구

적인 BTS 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한 문화 르포르타주다.

저자가 고백하는 입덕의 계기는 화려한 성공 서사가 아니다. 세계 정상의 자리에 서서도 불안과 결핍을 투박하게 털어놓는 소년들의 서사였다. 저자는 BTS를 완벽한 상품이 아니라 ‘흔들리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 성장담은 현실의 좌절을 경험해 본 중년 세대에게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다.

책은 저자가 직접 발로 뚫던 웹블리부터 파리,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2026년 광화문 캠퍼 공연까지의 압도적인 현장감을 담았다.

그러나 저자는 팬이 된 후에도 기사의 질문을 내려놓지 않는다. 병역 논란과 국가 행사에 호출되는 아티스트의 자발성 문제를 짚고, 하이브의 산업 시스템과 플랫폼의 가격 책정 방식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아쿠아리움, 전통미 입은 수중 전시 선포

롯데월드, 5개 테마존 운영

롯데월드아쿠아리움이 한국 전통미와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신규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하 2층 해파리존을 리뉴얼해 조성한 공간으로, 한국 전통미를 현대적인 미디어 조명 연출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형태의 수조와 조명 연출을 통해 담수어 약 3800마리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더 밝고 선명해졌다” CGV SCREENX 새단장

CGV가 자사 특별관 SCREENX의 대표 상영관인 용산아이파크몰 SCREENX 14관을 리뉴얼하고 한층 향상된 관람 환경을 선보인다.

오는 10일 새롭게 문을 여는 SCREENX 14관은 총 115석 규모로, 양옆 스크린과 프로젝터를 업그레이드해 화면의 밝기와 선명도를 높였다. 정면과 좌우 스크린의 연결감을 개선해 더욱 자연스럽고 몰입감 있는 3면 영상 구현이 가능해졌으며, 풍부한 색감과 향상된 화질로 SCREENX만의 차별화된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SCREENX는 정면 스크린뿐 아니라 양옆 벽면까지 영상을 확장해 상영하는 CGV의 특별관 포맷이다. CGV는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SCREENX 상영 환경을 개선하며 차별화된 영화 관람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리뉴얼을 기념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SCREENX 14관에서 영화 ‘모아나’와 ‘미니언즈 & 몬스터즈’를 관람한 고객에게는 SCREENX 포스터와 영화 굿즈를 선착순 증정하며, 정부의 영화관람 6000원 할인쿠폰도 SCREENX 상영작 예매에 사용할 수 있다.

7월 SCREENX에서는 다양한 기대작이 관객과 만난다. 지난 8일 개봉한 ‘모아나’를 시작으로 오는 15일 ‘호프’와 ‘미니언즈 & 몬스터즈’, 29일 ‘스파이더맨: 브랜즈 뉴 데이’ 등이 SCREENX 포맷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시진핑 “해외 인재 적극 유치...AI 등 핵심기술 자립 가속”
▲미군 “대이란 추가 작전 완료...90개 군사 목표물 타격”
/사진 뉴시스

▲중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0%로 둔화...PPI는 4.1% ↑ 4년 만에 최고
▲3주 휴전으로 역부족...美 원유 재고 ‘바닥’에 경제 비상

▲중재국 파키스탄, 美·이란에 자제 촉구...“중전 MOU 지켜야”
▲中, ‘관광 5개년 계획’ 발표...年 입국 관광객 1.9억명 목표



삼계탕 2만원 시대
복날 외식 대신
‘실속 홍보양’
니



Life

메디톡스
‘HA필러’로
글로벌 재공략
L2



울창한 숲 속 곡선 산책로... 나무와 물이 만든 ‘자연의 리듬’

아파트의 미학(美學)

운정자이 시그니처

서울역에서 GTX-A 노선을 타고 약 20분 달리면 운정중앙역에 다다른다. 역에 내리자 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선 새 아파트 단지 풍경이 펼쳐진다. 역을 나와 도보로 약 15분가량 걸다 보면 ‘운정자이 시그니처’ 단지가 나타난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우미건설이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공급한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로 지난 3월 입주 시작했다. 세대분리형 타입을 비롯해 옥외공간형, 오픈형 발코니, 펜트하우스 등 특화 평면으로 선택 폭을 넓힌 점이 특징이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인근에 GTX-A 운정중앙역이 개통되며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된 곳이다.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자유로, 제2자유로 진입도 용이하다. 교육 여건으로는 운정중앙초·운정중앙중이 걸 건너에 자리하고, 운정중앙고는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주변에 산내공원과 운정건강공원, 운정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녹지 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안에는 스카이라운지 성격의 ‘클럽 클라우드’를 비롯해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됐다.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분양 당시 청약 열기도 높았다. 1순위 청약에 총 4만 명이 넘게 몰렸고, 평균 경쟁률은 64대 1을 기록했다. 당시 파주 역대 최다 청약 건수로 주목받았다.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5억1000만원대로, 분양가상



곡선 물길 따라 나무와 휴식 테이블을 배치한 단지 시그니처 공간 ‘엘리시안 가든’.

/성채리 수습기자

**GTX 라인, 학세권 갖춘 988가구 규모
지명 맞춰 ‘구름’ 콘셉트 살린 조경 조성
곡선 물길, 보행 동선으로 리듬감 더해**

**70년 팽나무, 단지 중심에 자리잡아
다채로운 나무 그늘 아래 ‘숲속 심터’
계절 꽃·정원석 어우러진 잔디광장도**

**곡선, 장식 재해석한 조형물 ‘르네상스’
이웃간 교류 쌓을 수 있는 소통공간도**

한계가 적용돼 인근 신규 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지는 지명에 담긴 ‘구름이 끼어 있는 우물’이라는 의미를 조경 곳곳에 반영했다. 특히 중앙의 ‘엘리시안 가든’은 운정자이 시그니처 조경의 첫인상을 가장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공간이다. ‘운정명원’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수경 시설과 티하우스, 수목이 하나의 장면으로 연결된다. 바닥을 따라 낮게 흐르는 검은 수경 라인 은 정원 사이로 물길을 만들고, 그 위에 놓인 곡선 보행 동선이 리듬감을 더한다.

수경시설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나무에 둘러싸인 흰색 티하우스를 만날 수 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선 기둥과 일부가 열린 창 구조는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든다. 흰 구조물과 물빛, 오래된 수형의 나무가 조화를 이루며 깔끔하고 차분한 단지 이미지를 완성한다.

운정명원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서면 분위기는 한층 더 숲에 가까워진다. ‘운정마당’은 구불구불한 산책길과 울창한 수목, 원목 테이블과 의자가 어우러진 휴식 공간이다. 길을 따라 걸다 보면 울창한 나무 그늘이 시원하게 드리운다.

상징적으로 식재된 팽나무는 굵은 줄기와 넓은 수관으로 단지의 중심을 잡아준다. 입주민들의 삶이 서로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어 풍요롭고 조화로운 일상으로 이어질 바라는 마음으로 식재됐다. 경남 지역의 해풍을 70여년 세월 동안 견뎌내며 자라난 이 팽나무는 오래된 마을 어귀에 들어선 듯 정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팽나무뿐 아니라 배롱나무와 단풍나무 등이 야기를 품은 수목들이 입주민을 반긴다. 배롱나무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랜 기간 꽃을 피우는 나무로, 선비의 청렴함을 상징하는 정원수로 여겨졌다. 단풍나무는 정음 내장산 고택에서 70여년간 사계절을 지나온 수목으로, 변화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는 삶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나무가 지닌 시간과 상징을 소개하며 계절과 이야기가 쌓이는 공간으로 정원을 꾸렸다.

한쪽에는 입주민의 소통 공간인 청춘마당도 마련됐다. 사람들이 모여 머무는 광장형 휴게 공간으로, 사각형 구조의 테이블과 벤치, 낮은 화단이 질서 있게 배치돼 있다.

곡선이 강조된 수경시설이나 산책로와 달리 이곳은 직선과 사각 프레임 중심으로 정돈된 인상을 풍긴다. 중앙에 놓인 긴 테이블과 들레를 감싸는 벤치는 야외 회의 공간처럼 보이기도 한다. 조경을 이웃 간 일상적 교류가 이뤄지는 생활 공간으로 확장한 모습이다.

근처 잔디마당에는 이형욱 작가의 조형물 ‘르네상스’가 놓였다.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기둥, 곡선, 장식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실내 장식이나 조형에서 사용되는 디자인 요소를 확장한 형태다. 금빛 조형물은 주변의 녹지와 대비를 이루며 시선을 끈다. 기하학적인 선과 둥근 곡선, 반복되는 세로 결을 활용해 현대적 아름다움을 더한다.

‘구름’이라는 단지 콘셉트는 커뮤니티 시설로 이어진다. 운정자이 시그니처의 커뮤니티 시설은 클럽 클라우드(Club Cloud)라는 이름을 달았다. 단정한 입면과 정돈된 조경을 앞세워 단지 전체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맞췄다. 실버 카페와 숲속도서관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생활 공간도 마련됐다.

어린이를 위한 ‘스카이캐슬’ 놀이터는 동화 속 성을 연상시키는 놀이시설이다. 아이들이 ‘하늘궁전’ 안을 오르내리며 뛰어놀 수 있도록 꾸며졌다. 클라우드 가든은 파란색과 흰색을 중심으로 구름과 물방울 이미지를 살렸다. 입구의 ‘Cloud Garden’ 아치와 구름 모양 장식은 단지 이름과 조경 콘셉트를 놀이 공간까지 이어주는 장치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1



2



3

1 구불구불한 산책길과 울창한 수목, 테이블이 어우러진 ‘운정마당’ 2 잔디마당에 위치한 이형욱 작가의 조형물 ‘르네상스’ 3 엘리시안 가든 내 티하우스.

메트로 한줄뉴스



▲ ‘푸른 피의 에이스’ 원태인 출격...삼성 ‘전반기 1위’ 견인할까
▲ 아쉬운 전반기 보낸 SSG 김건우...후반기 달라지길 바라는 사령탑 /사진 뉴스시스

▲ 스피드스케이팅 팀 스프린트, 2030년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 ‘선수단 정리’ 롯데, 투수 박시영·내야수 최항 등 3명 방출

▲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최대한 협조”...참고인 손흥민은 불투명
▲ 송형근, 전국육상대회 남자부 400m 대회신기록 우승